

2019 청년재단

고립청년(은둔형외톨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2020. 1. 28

파이교육그룹

목 차

요약

I. 서 론

- 1. 사업 필요성 1
- 2. 사업 목적 2
- 3. 사업 일정 3

II. 이론적 배경

- 1. 고립 청년의 의미 4
- 2. 고립 청년의 실태 6
- 3. 외국의 사례 7

III. 조 사 방 법

- 1. 면담문항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9
 - 가. 문헌 연구 9
 - 나. 국내 주요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카페 분석 9
 - 다. 파일럿 조사 10
 - 라. 타 기관 면담 내용 분석 10
 - 마. 전문가 검증 11
- 2. 면담문항 개발 및 구성 12
 - 가. 면담문항 개발과정 12
 - 나. 면담문항 구성 12
 - 다. 전문가 검증 13
- 3. 1대1 면담 14
 - 가. 면담자 사전교육 14
 - 나. 대상자 사전접촉 15
- 4. 추후 관리 16

5. 자료 분석	16
가. 양적 분석	16
나. 질적 분석	16
IV. 조사 결과	
1. 면담문항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17
가. 문헌 연구	17
나. 국내 주요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카페 분석	18
다. 파일럿 조사	19
라. 타 기관 면담 내용 분석	30
마. 전문가 검증	30
2. 1대1 면담 결과	30
가. 고립 청년 1대1 면담	31
나. 고립 청년 부모 1대1 면담	40
V. 논의 및 정책 제언	
1. 논의	51
2. 정책 제언	54
VI. 실태조사 함의 및 면담조사 애로사항	
1. 실태조사 함의	57
2. 실태조사의 애로사항과 제한점	56
참고문헌	58
부록	60
부록 1. 청년용 설문지	61
부록 2. 부모용 설문지	71
부록 3. 대상자 면담약속을 위한 연락 매뉴얼	76
부록 4.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카페 분석 결과	80
부록 5. 고립청년 연락 및 면담진행 과정	86

표 차례

표 1. 전체 사업 일정 및 주요 내용	3
표 2. 국내 은둔형 외톨이 주요 카페 Overview	9
표 3. 파일럿 조사 참여자 정보	10
표 4. 타기관 면담 참여자 정보	10
표 5. 전문가 집단 구성	11
표 6. 사전교육자료	14
표 7. 고립의 시작과 계기	19
표 8. 지속된 기간과 이유	19
표 9. 은둔을 벗어나고자 한 경험과 계기	20
표 10. 도움이 되었던 요소와 다시 고립하게 된 이유	20
표 11. 섭식 및 수면 상태	20
표 12. 주로 하는 일	21
표 13. 주된 대화 상대	21
표 14. 경제적 상태 및 조달 방법	22
표 15.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	22
표 16. 가장 힘들고 불편한 요소	22
표 17. 가해나 폭력 경험	23
표 18. 자해나 자살시도 경험	23
표 19. 고립 생활의 의미	23
표 20. 타인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	24
표 21. 고립 생활을 통해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	24
표 22.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도	24
표 23. 고립 생활에서 벗어날 가능성	25
표 24. 현재 가장 바라는 것	25
표 25. 내가 보는 나의 미래	26
표 26. 가장 필요한 도움	26
표 27. 고립 청년부 장관이 된다면	26
표 28. 고립 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27

표 29. 자녀의 어린 시절	27
표 30. 자녀의 은둔 배경 및 지속상태	28
표 31. 자녀의 현재 생활상태	28
표 32. 자녀의 문제행동 및 가족의 어려움	29
표 33. 자녀의 은둔생활에 대한 인식	29
표 34. 자녀의 은둔과 관련된 기대 및 욕구	30
표 35. 파일럿 테스트 후 피드백	31
표 36. 고립 청년 인적 사항 빈도	32
표 37. 고립 청년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34
표 38. 고립 청년 면담 주요 결과	36
표 39. 고립 청년이 원하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	40
표 40. 고립 청년 부모의 인적사항 빈도	41
표 41. 고립 청년 부모들의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42
표 42. 고립 청년 부모 면담 주요 결과	43
표 43. 고립 청년 부모가 원하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	48
표 44. 고립 청년 면담자들이 제시한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49
표 45. 청년 부모 면담자들이 제시한 필요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	50

< 실태조사 요약 >

□ 개 요

- 사업기간 및 예산 : 2019. 9. 25 ~ 2020. 1. 31
예산 29,975,000원
- 면담조사 인력 : 파이심리상담센터 전문상담사 7명

□ 면담조사 진행 경과



□ 면담조사 양적 결과

○ 시기별 면담결과

(단위 : 명)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계	총계
청년	22	10	11	4	47	81
부모	9	19	5	1	34	

파일럿 조사 : 청년 4명, 부모 1명, 총 5명. 9월 말 파이교육 자체 발굴로 진행

○ 대상자 연결 기관별 면담결과

(단위 : 명)

청 년		부 모		계	
청년재단	파이교육	청년재단	파이교육	청년재단	파이교육
39	8	25	9	64(79%)	17(21%)

※ 청년재단 연결 대상자(총 103명) 중 62.1% 면담완료. 파이교육 자체 발굴 17명 전원 면담 완료. 고립청년 100명 면담 목표는 제공 명단 부족으로 미달됨

○ 고립청년 환경 결과 중 주요내용

구분	거주지	연령	성별	출생 순위	학력	동거	경제력	고립 이유	고립 기간
내용	서울 경기	20대	남성	첫째/ 외동	중퇴/ 졸업	부모	중	관계 및 학교 부적응	1~2년
비율	93.6%	80.8%	66%	72.4%	63.8%	55.3%	57.4%	51%	33%

면담조사 질적 결과

○ 고립청년 면담 주요 결과

- ① 고립청년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거나 매우 소수이며, 대부분 상담이나 정신의학과 도움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음
- ② 10대 ~ 20대 초반에 고립이 시작되었고, 최종 고립 이전에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했던 경험들이 있으며, 정서적 불안(우울, 신체화, 불안, 무기력), 대인관계 어려움의 호소가 특징적임

- ③ 밤낮이 바뀌어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경향이 많으며, 삶에서 시간과 기회를 이미 놓쳤다고 생각함
- ④ 주변 사람들의 좀 더 따뜻한 시선, 이해와 공감, 공동체, 커뮤니티 등을 원하고 있음

○ **고립청년의 부모 면담 주요 결과**

- ① 자녀의 고립은 주로 중고교 시절에 시작되었으며, 부모로서 양육에 대한 자신감 저하 및 자녀 관점에서의 이해가 부족했음을 느끼고, 자식에 대한 돌봄 부족, 대처능력 부족, 학업 강요 등을 후회하고 있음
- ② 고립된 자식으로 인한 우울, 불안, 죄책감 등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치유의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함
- ③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며, 고립상태가 지속되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가장 바라고 있음

○ **고립청년 및 부모들이 희망하는 정책이나 프로그램**

- ① 사회의 공감과 이해, 대화 상대, 멘토링, 커뮤니티 생활 및 고립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제도적 공동체 시설 마련 및 복귀 프로그램 확대 시행
- ② 고립 청년과 부모를 위한 경제적 지원, 취업 지원, 공동체 확대, 멘토링 및 전문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 ③ 학교폭력이나 또래 문제 발생이 고립의 시작 요인임을 감안, 문제발생 초기에 단순한 행정적 처분보다 부모가 적극 대처 가능토록 부모교육 제도화 등 고립청년 초기단계 대응책 마련

□ 논의 및 정책 제언

- ① 청년 및 부모의 우울, 무기력,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고립청년 및 부모를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 이전에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돕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기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음
 - 일본에서는 청년기부터 시작된 고립이 장기화되어 중장년(40~60대) 은둔형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
 - 고립청년의 확산이 뚜렷해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10~20년 이내 유사한 사회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고립청년 및 부모들의 심리적 회복을 도와 사회부적응과 장기고립의 악순환을 예방할 수 있는 전문 상담프로그램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됨

- ② 고립청년은 20대가 가장 많고 대학 중퇴 및 대졸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남성이 많음을 감안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지원정책이 필요함
 - 고교 졸업, 대학 입학, 군 제대 후 적응 등 특정 삶의 시기는 발달과제와 관계변화의 가변성이 높은 시기여서, 이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할 때 고립이 시작되기 쉬움
 - 따라서 문제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청소년 및 청년들이 이 시기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 전문가 교육, 내적 힘 강화 모임, 주변 지지자원 확보 등에 대한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③ 고립기간, 사회참여 정도, 활동 가능한 심리적 에너지 수준 등에서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함

- 대상자들은 고립기간이 1~2인 경우와 5년 이상 된 경우,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가벼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는 등 편차가 컸음
- 따라서 향후 정책지원에서는 대상자들을 고립 청년의 특성을 가진 동일한 집단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고립생활의 시작 단계 vs. 장기 고립 상태를 구분하거나, 심리적 에너지와 사회참여 동기 수준에 따라 지원활동을 달리 하는 등 대상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④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잘못된 기대와 양육 상 시행착오가 고립 청년 발생에 영향을 줌을 감안하여, 이러한 연결고리를 줄이는 예방교육과 함께 기존의 부모-자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관계형성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 자녀양육, 특히 첫 부모역할인 첫째 자녀 양육에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를 줄이고,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수립하고, 관계적 폭력을 반복하지 않는 건강한 부모 역할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러한 교육을 초·중·고등 교육 및 평생교육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자녀의 고립으로 인해 부모-자녀관계가 악화된 경우, 조금이라도 관계개선과 악화예방을 위해 부모가 배울 수 있는 의사소통 및 관계맺기의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함

⑤ 학교 내 또래관계 문제가 고립의 시작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작점에서 현행의 분리 및 행정조치 위주의 문제해결 방식 대신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가 필요함

- 또래관계 문제 혹은 학교폭력은 관계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를 고립과 사회적 단절로 이어지게 함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공교육 내에서 이러한 연결의 위험성을 고지시키는

예방교육이 필요함. 또한 문제 발생 시 피해자가 사회적 관계를 모두 단절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변의 지지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학교와 심리상담센터 등 관련 기관이 함께 협조하는 적극적인 초동 대처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⑥ 고립청년과 부모들은 절실히 사회적 복귀를 원하고 그 시작점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작은 시도라도 이들이 다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고립청년과 부모의 상황이 개인적 문제로 치부되거나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및 사회복지망 구축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맞는 지원제공이 필요함
 - 구체적으로, 그들에 대한 생활공간 제공, 자조적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 개인 및 집단상담 참여 기회 제공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음
 - 또한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운영이 필요함

□ 실태조사 함의 및 면담조사 애로사항

○ 실태조사 함의

- ① 고립청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 최초로 실시한 본 실태조사는 면담 대상자의 제한된 인원으로 인해 명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음. 그러나 본 조사를 통해 고립청년에 진입하는 주요 원인과 동기, 고립청년 및 부모들의 현실 여건과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음. 따라서 본 조사 결과는 향후 고립청년 관련 유사한 사업진행 시 구체적인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② 본 조사에서 대상자들이 가장 크게 반겼던 점은 전문상담자가 직접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1:1 상담식 면담으로 그

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라포를 형성했다는 점이었음. 대상자 중 다수는 자신들이 기존에 참여한 조사나 프로그램에서는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거나 집중적인 탐침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2차 심리적 피해를 경험했음을 토로함. 따라서 향후 고립청년 관련 조사 및 정책적 지원 운영 시 마음개방과 관계형성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리상담 바탕의 접근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이 확인됨

- ③ 고립청년으로 진입하게 되는 주요 동인이 학교 부적응 및 또래 관계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보고를 통해, 또래관계 문제 발생시 가해자·피해자 분리위주의 대처가 근본 해결책이 되기 어려웠음이 확인됨. 이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 문제의 경우에도 이것이 자녀의 고립시작 및 지속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초기 대응방안에 대한 부모대상 교육과 멘토링 제공을 부모들이 절실하게 원하고 있음이 확인됨

○ 애로사항과 해결노력

- ① 특성 상 과거에 대한 후회,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분노표출 등의 감정적 격동이 생길 수 있어, 면담자의 안전 확보 마련이 필요했음. 이를 위해 2인 1조로 면담을 진행하거나 가족구성원 재가 시 면담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함
- ② 고립 청년들은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4번의 전화 연락 이후에나 접촉이 가능하거나, 약속 이후에도 노쇼, 연락두절 등의 상황발생이 빈번했음. 따라서 면담일정 확보 및 유지를 위해 출발 전 반복 확인, 문자와 연락을 통한 이중 확인, 연락 두절자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유 등의 노력을 꾀함
- ③ 고립청년들의 밤낮이 바뀐 생활 패턴으로 인해 활동 시간대가 다른 것과 낮선 사람이나 상황 노출에 대한 경계심이 높은 점으로 인해 진솔하고 신뢰할만한 응답을 얻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결과 도출 전에 인내와 기다려줌을 통해 라포형성을 우선함으로써 심리적 경계심을 낮추는 노력을 기울임

I. 서론

1. 사업 필요성

최근 청년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정치·문화적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장기화된 구직난, N포세대, NEET족 등의 단어들은 현재 청년들의 어려움을 대변하는 신조어로 분류된다. 어려서부터 경쟁적인 환경에서 자라 온 현 세대는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이 스스로 선택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자신을 은폐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고 은둔한다는 것을 병적인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단·장기적 양상으로 그 심각도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나 가족들 뿐 아니라 주변의 모든 소통을 단절시키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발적인 철수양상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장기적인 은둔의 경우, 환경적, 사회적 어려움, 개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성향의 고립이라도 심리적인 어려움과 적응상의 문제를 관찰하여 가속화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심리적·사회적인 면에서 학습과 적응을 하면서 성장, 발달하도록 동기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시작된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 즉 ‘은둔형 외톨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어가고 있으며, 새로운 병리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꼭 칩거하는 은둔형 외톨이의 형태가 아니라도 선택적으로 혼자이기를 자처하는 현 세대의 트렌드는 ‘은둔형 외톨이’의 확산에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으로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가족 이외의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하지 않으면서 일체의 사회적인 관계를 거부하고 자신의 방이나 집안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히키코모리가 199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출현했을 때만 해도 히키코모리는 일본에서만 나타나는 특수한 문화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한국도 1998년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 청년 실업률의 증가 등과 더불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은둔형 외톨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또한,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률이 전세계에서 최고 수준에 이르면서 이러한 은둔형 외톨이가 급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백형태, 김봉년, 신민섭, 안동현, 이영식, 2011). 2003년도에 발표된 일본 후생성의 자료에서는 16세~30세 청년의 약 1%에 해당하는 130만 명의 청소년 및 청년들이 히키코모리 증

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최근에는 히키코모리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른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백형태, 외 2011).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연구가 시작되어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현상이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음이 처음으로 알려졌다(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 2000). 이 연구에서는 절반 이상의 은둔형 외톨이가 사춘기가 시작되는 청소년 시기에 발병하는 것으로 분석됐고, 문제점으로는 우울 증상, 대인공포, 자기혐오, 퇴행, 공격성향 등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의 은둔형 외톨이 연구 이후 후속적으로 축적된 연구의 양은 턱없이 부족하여 현재는 그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장기화된 청년실업문제, 부모로부터의 독립이 점차 늦어지고 있는 현재의 사회현상에서, 국내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반드시 주목해야 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문제이다. 청년들의 사회진출과 지속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 어려움과 사회적응 문제가 증폭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고민으로만 떠안을 뿐 알리려 하지 않고 감추어 왔으며, 정치 경제 및 사회적 관심도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적 제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립청년 및 부모들에 대한 면담조사 연구를 수행하였다. 다만, 은둔형 외톨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부정적 의미를 순화하기 위해 ‘고립 청년’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2. 사업 목적

본 사업에서는 고립 청년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을 구성 및 개발하고 면담인력을 꾸려 사전 교육 후 1:1 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고립 청년 47명과 34명의 부모 등 총 81명이었으며, 인터뷰와 동시에 설문지 조사를 함께 실시하여 양적, 질적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를 통해서 고립 청년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① 고립 청년으로 빠져들게 되는 동인과 환경을 분석하여 고립청년 예방을 위한 가능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② 현 고립청년과 부모들의 생활환경과 실태 및 그들의 욕구를 조사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실질적 도움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있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면담조사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 청년의 전반적인 생활 및 경험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고립 청년 맞춤형 서비스, 고립 청년 보호 및 지원 강화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고립 청년을 둔 부모의 전반적인 생활 및 경험 실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

해 고립 청년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고립 청년 가족 보호 및 지원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고립 청년의 정신건강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고립 청년의 전반적인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우선 지원 및 강화되어야 할 심리지원 접근에 대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은둔 청년과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이를 통해 수요자인 고립 청년과 그 부모를 위한 양육태도 변화의 실질적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관계 단절 해소의 실마리를 찾고 실질적 관계 개선을 위한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고립 청년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부모교육 방향과 부모-자녀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일정

전체 사업 일정과 주요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전체 사업 일정 및 주요 내용

주요 내용	2019 9/25~	10/7~	~10/24	~11/4	2020 ~1/8	2020 ~1/31
문헌연구						
온라인 카페 분석						
면담자 사전교육						
문항구성 및 파일럿						
개별 면담 실시						
양적 및 질적 분석						
연구단 회의						
사업 보고서 작성						

II. 이론적 배경

1. 고립 청년의 의미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정의 과도기적 단계로서 현대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빨랐고 심리·경제적 독립도 쉽게 이루어진 편이었으나, 산업사회가 지속되면서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복잡해지고 연장되고 있다. 청년기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생물학적 발달관점에서의 ‘adolescent’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인으로 이행해가는 과정상 구별된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사회적 집단을 말할 때의 ‘youth’로 구분해 볼 수 있다(정옥분, 2005). 즉, 청년기는 생물학적 발달과정 상 신체적·정신적 어른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호르몬 및 성장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의미한다. 한편 ‘고립’의 정의는 사전적으로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아니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여 외톨이로 됨’을 의미한다.

고립청년의 선행개념인 은둔형 외톨이는 은둔과 외톨이를 합친 합성어로서 은둔한 상태에서 외톨이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의미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0)에서 처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발표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다. 여인중(2005)은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사회 참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며, ‘가족 이외의 사람과 친밀한 인간관계가 없으면서 3개월 이상 사회 참여를 안 하는 사람’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정의하였다. 한국청소년상담원(2005)은 최소한의 사회적인 접촉 없이 3개월 이상 집 안에 머물러 있고, 진학·취업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할 수 없거나, 하지 않고 있으며, 친구가 하나밖에 없거나 혹은 한 명도 없고, 자신의 은둔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감을 느끼는 청소년으로, 정신병적 장애 또는 중증도 이상의 정신지체(IQ 55-50)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고 은둔형 외톨이를 정의하였다.

본 은둔형 외톨이라는 부정적 단어 대신 고립 청년이라는 말로 대체하여 사용하며 20대 이상이면서 자발적으로 3개월 이상 사회참여를 하지 않고 철수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이 있는 사람을 고립 청년으로 정의한다. 종합하여 ‘고립 청년’이라 함은 생물학적으로 청소년이 아닌 성인의 연령에서 비교적 초반기에 해당하는 20대 이후의 사람이 심리·경제적 독립 측면에서 또는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개인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가. 고립 청년의 특징

고립 청년의 특징으로는 첫째, 타인의 친밀감과 애정을 동경하면서도 직접적으로 관계 맺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나 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을 필사적으로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다. 둘째, 이들은 자존감이 낮아 무언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자신이 성취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평가 절하하는 경향이 강하다. 셋째, 자신의 성질을 건드리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상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하여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해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는다. 이런 것들로 인해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 것이라는 자기 혐오적인 생각을 시작하면서부터 방 안에 틀어박히게 된다는 것이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다(이지민, 2019).

나. 고립 청년의 발생원인

고립 청년의 발생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으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그러나 크게 나누어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먼저 개인적 요인으로는 생물학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기술 부족 등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생물학적 특성은 신경 체계의 기능 변화로 인해 사회적 철회가 일어난다고 보는 경우 또는 장기간 은둔생활로 인해 호르몬 분비 리듬이 깨져서 밤낮이 뒤바뀌는 경우인데, 이러한 의학적 관점에 대한 연구는 좀 더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12). 심리적으로는 무력감과 부정적 생각이 중요한 증상 중 하나다. 이들의 주된 정서는 우울 및 불안으로 다른 사람의 반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불신과 의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며 때로는 분노와 공격성이라는 감정에서 자신이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 및 관계로부터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오윤선, 2010; 허경운, 2005 이지민, 2019에서 재인용). 이러한 성향은 자연스럽게 사회기술 부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기본적인 사회적 관계의 기회조차 갖지 못함으로써 더욱 가속화된다.

다음으로, 환경적 요인으로는 가족 요인, 학교 부적응, 사회문화적 요인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가족 요인에서는 부모의 과잉보호, 과잉통제, 모자 밀착 등 자녀들이 건강한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기에 부적절한 양육 태도로 인해 의존적이고, 미성숙하며, 자생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여인중, 2005; 청소년위원회, 2005). 이와는 반대로 가족 간의 감정적 교류가 단절되거나 가족의 정서적 유대감이나 신뢰가 빈약하여 세상에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게 되면서 가족에 대한 서운함과 불신을 표현하고 더 나아가 친구나 사회로 확대되어 단절하기도 한다(김유숙 외, 2012). 둘째, 학교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

력 피해자 및 위기 청소년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입시교육, 입시경쟁 등의 교육 문제로 인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개인의 통합과 안정적인 자아상 획득에 방해요인이 될 수 있다(청소년 위원회, 2005). 셋째,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개인주의 경향의 팽배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들 수 있다. 과도한 경쟁위주의 사회는 점수경쟁, 서열화 등으로 점점 더 실적위주의 개인을 요구하고, 초고속 인터넷망이 확대되면서 굳이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정보를 획득하거나 온라인 인간관계 속에서도 일정 수준의 관계유지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굳이 고립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SNS 사용이 보편화된 환경에서 고립 청년 증가는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2. 고립 청년의 실태

청년은 NEET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는데,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는 일하지 않고, 학교도 다니지 않고, 훈련도 받지 않는 젊은이를 지칭한다.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과 NEET는 노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NEET의 경우 대부분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 고립 청년, 즉 은둔형 외톨이는 대인관계가 없다는 차이가 있다(여인중, 이영식, 2012).

한국은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15-29세 청년 니트 비율이 2016년 18.9%로 OECD 평균(13.9%)과 비교해 5%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OECD, 2017). 이는 청년 NEET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특히, NEET와 고립 청년은 대인관계의 유/무 외에는 다수의 유사점이 존재하는데 NEET의 증가세는 곧 고립 청년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고립 청년 즉,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좀 더 개인적이고 내향적인 성향으로 인해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좀 더 심층적인 접근을 통한 실태 파악과 정책지원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종합하면, 고립 청년들은 사회에 소속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경험함과 동시에 사회적 소외감, 대인관계에서의 철회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처해진 상태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장기화될수록 실패감, 무기력함, 자아존중감 저하, 우울, 불안 및 대인관계 공포, 공황장애와 같은 심리적 부적응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나 선택적으로 외부 관계 단절을 반복하는 이들의 특성상 사회적으로 쉽게 드러나지 못하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스스로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 및 심층적이고 개별화 된 정책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3. 외국의 사례

가. 일본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에 대한 지원과 대책이 체계화된 일본은 공적 영역에서 히키코모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기관으로 청소년 건강센터가 있는데 이 중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것에 곤란함을 느끼는 청소년에게 만남과 휴식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젊은이 클럽’이라는 제도가 있다. 클럽은 음악, 스포츠, 영화, 게임과 토론 활동을 통해 대인관계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학교로 복귀하거나 진학을 목표로 할 경우에는 학습지도, 생활지도, 카운슬링적 대응을 위해 ‘상담적 가정교사’를 가정에 파견하고 있다(노여진, 2007). 또한 학업중단, 은둔형 외톨이, 게임 중독, NEET 등 사회부적응 상태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젊은이 자립학원’과 같은 기숙형 회복 지원 네트워크가 있다. ‘젊은이 자립학원’에서는 생활훈련, 노동체험을 통해 사회인, 직업인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의 획득, 근로관의 숙성을 도모하며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신과 의욕을 불러 일으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청소년위원회, 2005).

일본은 이미 히키코모리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가정-학교-상담 및 치료기관의 유기적인 협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나. 영국

영국은 청소년 NEET에 대한 개입과 부적응 청소년 잠재 및 위험집단에 대해 Connexions 서비스와 같은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지역자치단체와 각 지역의 청소년 관련 단체들을 통합하여 다차원적인 도움을 직접 전달한다. 부적응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 도움을 전달하며 지역 중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다. 미국

미국의 청소년 정책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청소년정책을 기획하고 대부분 주정부에서 독립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정책을 수행한다. Job Corps, School to Work 등의 사회부적응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원과 기회를 제공한다.

라. 프랑스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젊은이종합문서정보센터(CIDJ: Centre d'information et de documentation pour la jeunesse)를 통해 이루어진다. 젊은이종합문서정보센터는 파리시에 있는 중앙센터와 프랑스 내 1,200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센터로 이루어져 있다. 젊은이 종합문서정보센터(CIDJ)는 취업이나 교육, 생활상담(법률, 주택, 건강), 문화 및 예술 활동에 대한 정보제공과 상담, 지원서비스 등 모든 청소년 및 청년들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동시에 특정 주제에 관한 워크숍이 열리고 주제별 그룹회의와 청소년 및 청년회의가 개최된다. 현재 젊은이종합문서정보센터(CIDJ)에는 약 33만 명이 방문 중이고 온라인상에서도 정보 접근과 제공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http://www.cidj.com/>)를 운영 중에 있다. 청년고용정책 전달체계는 중앙에서부터 지역으로 이어지는 통합고용센터(Pôle Emploi)와 지역 중심으로 운영 중인 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지역 센터(Mission Locale)로 나누어져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III. 조사 방법

1. 면담문항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가. 문헌 연구

본 연구에서는 고립 청년, 즉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학위논문 및 연구논문과 정책 보고서, 은둔형 외톨이 관련 서적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최근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고, 은둔형 외톨이 실태 및 관련 도서에 대한 문헌분석을 하였다. 주요 키워드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니트 등이었고 학위논문, 관련서적, 국내외 조사 결과, 정부 보고서 검색을 통해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설문 문항 선별 작업을 하였다.

나. 국내 주요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카페 분석

국내 주요 포털의 온라인 카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부모 모임 등의 카페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5개 카페에 대한 전체 개요, 카페 별 정보, 가입 계기 분석, 전체 주제어 분석 등을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현 시점에서의 은둔형 외톨이가 겪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의 내용들을 취합하여 키워드화하였고 조사문항 개발에 참조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2. 국내 은둔형 외톨이 주요 카페 Over view

구 분	The Hopper	이미 아름다운 당신	히키코모리 탈출	히키코모리가 된 어른들	은둔형 외톨이 부모모임
설립연월	2011.10.10	2007.07.08	2009.9.25	2009년 경	2019.02.17
회원수	14,001	11,183	3,389		118
즐거찾는 멤버수	1,179	약178	약 160	알 수 없음	10
평균 1일 새 글 수	평균180개~200개	10개 이하	10개 이하	5개 이하	5개 이하
특이사항	가입자, 즐겨찾기, 새글수가 가장 많은 대표 카페.	계슈탈트 치료 전문가가 운영		- 히키코모리 온라인 모임 -카페/회원정보가 전혀 없음	-부모가입자 수 현저히 적음

다. 파일럿 조사

파일럿 조사는 과거 은둔 경험이 있었거나, 소외 경험이 있었던 청년들을 대상으로 양적 설문지, 은둔 경험에 대한 설문 등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파일럿 조사도 함께 실시되었다. 파일럿 조사 실시 전후로 연구원들의 협의를 통해 질문지 수정과 보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 파일럿 조사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고립 청년 4명, 고립 청년을 둔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파일럿 조사 후에는 조사 대상자들의 동의하에 내용 분석을 실행하면서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표 3. 파일럿 조사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연령)	고립 시기	고립 계기
참여자1	남(23)	고교 자퇴 후	사람을 못믿게 됨
참여자2	여(19)	초 4	집단 따돌림
참여자3	남(22)	전역 후	실패감
참여자4	남(23)	고교 자퇴 후	학교를 다닐 의미가 없음
참여자5(부모)	여(44)	사춘기 무렵	문을 닫고 나오지 않음

라. 타기관 면담 내용 분석

은둔형 외톨이 면담 기록(익명성 보장 범위 내)이 있는 타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인터뷰 자료 분석을 통해 공통성 추출, 주요 키워드 확인을 하였다. 카페 분석 자료와 통합하여 질문지 수정, 보완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표 4. 타기관 면담 참여자 정보

구분	성별(연령)	고립 시기	고립 기간	고립 계기
참여자1	무기명	20살 이후	-	대학적응실패
참여자2	무기명	대학 졸업 후	2년 6개월	성대를 다쳐 노래를 할 수 없게 됨
참여자3	무기명	10대 후반	4년	유학실패
참여자4	무기명	20대 초반	-	대인관계 어려움, 외모 콤플렉스
참여자5	무기명	-	2년 6개월	우울증
참여자6	무기명	청소년기	청소년기부터	건강 상 학교부적응

참여자7	무기명	성인기 이후	4~5년	우울증, 사회공포
참여자8	무기명	성인기 이후	-	시험 실패
참여자9	무기명	-	-	대인관계어려움
참여자10	무기명	성인기 이후	장기간	지속적 고립감
참여자11	무기명	-	-	불안
참여자 12	무기명	-	-	외모 콤플렉스
참여자 13	무기명	-	-	반복된 실패, 좌절감
참여자 14	무기명	-	-	고립감, 불안, 자신감부족
참여자15	무기명	-	-	대인관계 어려움

마. 전문가 검증

설문지 구성과 문항 검토, 인터뷰 질문 추출을 위해 9월 27일부터 전문가 자문을 시작하였다. 상담 관련 박사학위 이상의 전문가 5명, 관련 분야 전문가 1명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에서 연구자 단체 대화방을 통해 설문지와 질문지가 수정, 보완되었다. 또한 면담자들의 보완점 피드백과 대상자의 면담 후 피드백들을 모아 설문지 수정 및 보완에 현실성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총 2회의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2019년 10월 17일 전체 문항이 완성되었다.

표 5. 전문가 집단 구성

구분	관련 경력	전문가 집단 분류	성별
전문가1	24년	상담학 교수/상담심리전문가	여
전문가2	18년	상담학 교수/상담심리전문가	여
전문가3	32년	학사지원/프로그램 운영	여
전문가4	12년	놀이치료 전문가	여
전문가5	9년	상담학 박사	여
전문가6	5년	상담학 박사	여
연구원1	6년	상담학 석사 재학	남
연구원2	1년	상담학 석사 재학	여

2. 면담문항 개발 및 구성

가. 면담문항 개발과정

면담문항은 2019년 9월 23일 문헌연구를 통한 설문지 수립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친 수정과정을 통해 완성되었다. 면담문항은 크게 고립 청년용과 고립 청년의 부모용으로 나누어 구성하였다.

나. 면담문항 구성

먼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설문 목록을 구성하였다. 그 후 고립 청년을 위한 히키코모리 척도, 은둔형 외톨이 척도, 부모양육태도검사, 간이정신상태검사, 자살 사고, 미래조망 등에 관련한 척도들을 검토하여 선별작업을 하였다. 타당도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증과 문항 수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은둔형 외톨이 척도, 간이정신상태검사,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검사 도구로 결정하였다. 또한 청년들의 고립 경험에 대한 개별화 된 접근을 위한 질문 문항을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설문이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고립 청년의 부모를 위한 설문은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설문, 부모의 양육태도 검사로 구성되었고 고립 청년들의 고립에 대한 부모 및 가족들의 심층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1) 고립 청년 척도

청소년 위원회(2005)에서 우리나라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 위험군 실태 조사를 위해 개발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조사는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이 아닌 고립 청년이 대상이기 때문에 연구진 자체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해 수정 및 보완 과정을 거쳤다.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고립청년의 고립정도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2)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 -90-Revision, SCL-90-R)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는 Derogatis 동료들(1976)이 개발한 ‘Symptom Checklist -90-Revision’ 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재표준화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목록 검사이다. 이는 9개의 증상 차원, 9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각각 1개의 심리인 증상을 포함하고 있다. 검사의 응답자는 오늘을 포함해서 지난 7일 동안 경험한 증상의 정도에 따라서 ‘전혀 없었다.’부터 ‘아주 심했다.’까지의 5점 척도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였다.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정신건강상태가 좋은 것을 의미한다. 신체화, 강박증, 대인민감성, 우울, 불안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의 총 9개의 증상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김광일 등, 1984).

(3) 부모 양육태도

부모의 양육행동 척도는 Parker(1978)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것이다. 본 척도는 Likert식 5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자녀가 자각한 부모님의 양육행동에 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1점),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할 수 있게 하였다.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두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차원은 총 12문항, 돌봄의 부족, 즉 방임적 또는 거부적인 부모의 태도 대 따뜻함을 측정한다. 과보호차원은 총 13개 문항으로,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동 대 독립성을 키워주는 자율적인 부모의 태도를 측정한다. 높은 점수의 과보호는 과도한 통제, 의존심을 키우는 양육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점수는 독립심,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4) 부모 양육태도- 부모용

고립 청년의 부모용 양육태도 검사는 Parker(1978)가 개발하고 Gamsa(1987)에 의해 수정된 PBI(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송지영(1992)이 한국형으로 개발한 것인 부모양육태도 검사를 연구 목적에 맞게 부모용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돌봄(care)과 과보호(overprotection) 두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돌봄 차원은 총 12문항, 돌봄의 부족, 즉 방임적 또는 거부적인 부모의 태도 대 따뜻함을 측정한다. 과보호차원은 총 13개 문항으로, 사생활 침입, 과잉통제, 죄책감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행동 대 독립성을 키워주는 자율적인 부모의 태도를 측정한다. 높은 점수의 돌봄은 정서적 따뜻함과 공감의 많음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점수는 정서적 냉담함, 무관심이 많음을 의미한다. 높은 점수의 과보호는 과도한 통제, 의존심을 키우는 양육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반면, 낮은 점수는 독립심, 자율성을 키워주는 양육태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 전문가 검증

고립 청년과 고립 청년의 부모를 위한 설문 및 면담지는 상담심리전문가, 청소년 상담학 교수, 교육전문가, 상담학 박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집단이 반복적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하였다. 먼저 은둔형 외톨이 선별 척도, 부모양육태도 척도의 문항 선별 및 수정작업이 진행되었고, 심층적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 문항은 파일럿 조사를 거쳐 지속적인 보완작업을 거쳤다.

3. 1대1 면담

1대1 면담은 2019년 10월 17일에 첫 참여자를 시작으로 2020년 1월 8일까지 총 47명의 고립 청년과 34명의 고립 청년의 부모 등 총 8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청년재단을 통해 총 5차에 걸쳐 103명의 면담 대상자 명단을 입수하였다. 명단 확인 후 면담자는 사전 전화통화를 통해 연구의 취지와 설문 방법을 안내하고 대상자의 동의하에 면담 일시를 정해 1대1 면담을 진행하였다. 참여자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였고, 면담 후에는 고립 청년은 2만원, 고립 청년의 부모에게는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였다. 면담은 공동생활시설 방문 후 면담, 사전 장소 약속 후 공개적인 장소에서 면담, 전화통화를 통한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면담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후 녹음되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구기간 동안 보관 후 파기하였다.

가. 면담자 사전교육

면담자 사전 교육은 2019년 10월2일 파이심리상담센터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전담인력, 조사인력, 심리상담전문가(자문의원) 등 8명이 참석하여 고립청년 실태조사의 의의 및 일정, 문항설계 내용 교육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집합 교육을 하였다. 이는 대상자 접촉 및 실태조사 면접 시 각 조사인력이 통일된 목적의식을 갖게 하여 조사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특히 고립 청년의 특성 상 마음을 개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면접기법도 함께 교육하여 조사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전화 접촉 시 유의사항, 기록 필요 사항, 구조화/비구조화 면담 실시 노하우를 중심으로 파일럿 조사 사례 시뮬레이션 등을 실시하였다. 교육 후에는 설문지 타당도 분석 작업을 하였다

표 6. 사전교육자료

2. 고립청년 실태조사

2-1. 조사문항 설계 (8월, 3주간)

- 기존 연구결과 분석
 - 고립청년 및 운동형외교인 청소년/청년 대상 국내외 연구결과 조사
- 온라인 매체 내용 분석
 - 국민 인터넷카페 (예 - 1000명 이상 카페 - 자유게시판 내용분석)
- 파일럿 조사 실시
 - 5명 내외 대상자 및 가족 대상, 실태/육구 세부내용 파악, 문항 구체화
- 전문가 검토 및 자문
 - 전문가 타당도 검토(심리상담전문가, 학교생활상담전문가, 교육전문가, 조사/분석전문가)

2. 고립청년 실태조사

2-3. 사전교육 및 실태조사 (8월 4주~11월 1주)

- 조사인력 사전교육 (1일 8시간)
 - 심리학 및 상담학 전문가 7명 (석, 박사)
 - 목적의식 공유, 면접진행 요령, 효과적 결과 도출 위한 워크샵형식 사전교육(파일럿조사 사례 시뮬레이션)
- 대상자 접촉
 - 대상자의 폐쇄적 특성 고려, 효과적 전화상담 활용 사용
 - 조사에 대한 구체적 안내, 원하는 장소/시간/상황 고려하여 면담 일시 결정
- 1:1 면접조사 실시 (매주 15명씩, 8주)
 - 녹음 사전동의, 공감·경청 대화법, 대상자 적극적 참여 유도, 비밀보장 기준 고지
- 대상자 추후관리
 - 이메일/전화상담, 자기개방 후 신뢰유지 목적, 이후 프로그램 진행 시 참여동기 고취

3. 실태조사 결과 분석

양적 / 질적 분석 (11월 1주~3주)

- 양적 분석 (SPSS 패키지 사용)
 - 항목별 기본 통계분석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운동기간별 차이 분석
 - 대상자와 부모집단 간 차이 분석
 - 두드러지는 실태와 욕구에 대한 양적 분석
- 질적 분석 (근거이론 grounded Theory 활용)
 - 조사자료에서 추출한 범주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연결, 상호관련된 핵심개념 도출
 - 사례별 특이사항과 스토리 분석
 -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경험에 대한 내용분석
 - 성별, 연령별, 운동기간 집단별, 대상자와 부모집단 간 응답내용의 공통점과 차이점 질적 분석

4. 결과보고, 기대효과

- 결과 보고
 - 중간보고 : 추진경과(1회) 및 완료보고
 - 종합 분석된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 면접조사 과정 중 축적된 양적, 질적분석 DB 제출
- 기대효과
 - 고립형/은둔형 청년의 실태에 대한 기본자료 파악
 -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고립형/은둔형 청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의 당위성 및 세부내용 확보

나. 대상자 사전접촉

면담 대상자 사전접촉은 주로 전화통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자들은 선불폰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을 최대한 예방하며 사전 접촉을 시도하였다. 고립 청년 사전접촉은 기본 매뉴얼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접촉 시도와 면담까지의 과정은 모두 문서화 하여 기록으로 남겼다. 고립 청년 연락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원칙] 대상자 리스트 수신 후 3일 이내 대상자와 접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최초연락] 연락 당일 2회의 연결 시도하되, 2회차 연락은 오후 6시 이후로 한다. (고립청년의 대부분의 늦은 기상으로 인해 오전 연결이 어렵고, 늦은 오후의 연결이 가정 성공률이 높다고 파악되었기 때문임.)
- (3) [2차 연락] 2회 차 연락 모두 연결 실패 시 5일 이내 3차 연락을 시도하되, 3차 연락도 가급적 오후 6시 이후로 한다.
- (4) [문자 발송] 3차 연락이 모두 실패한 경우, 문자를 발송하도록 한다.
- (5) 답장이 온 경우에 한하여 4차 연결을 시도한다.
- (6) 5차 연결까지 시도 후 반응이 없는 경우, 연락을 종결한다.
- (7) 단, 거절에 대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지 않은 경우, 필요 시 추후 재연락을 시도할 수 있다.
- (8) 모든 연락 history는 기록으로 남긴다.

4. 추후 관리

대상자들과 실태조사를 위한 면담 이후에도 이메일이나 전화상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사후 연락을 하며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며 추후관리를 하였다. 이는 대상자의 자기개방 이후 섬세한 추후관리가 신뢰 관계 유지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참여 동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5. 자료 분석

가. 양적 분석

고립 청년 및 고립 청년의 부모가 응답한 인적 사항 및 양적 설문에 대한 결과 분석은 SPSS-22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를 알아보기 위한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나. 질적 분석

조사자료에서 추출된 질적 자료를 검증하기 위해 사례별로 주목할 사항 및 특이사항에 대한 스토리를 분석하고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경험을 중심으로 유목화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고립 청년과 부모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IV. 조사 결과

1. 면담문항 개발을 위한 사전연구

가. 문헌 연구

(1)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 연구의 시초

한국에서는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2000)에서 이시형 소장과 여인중 박사 연구팀에 의해 처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로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현상이 국내에도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지게 되었다. 연구팀은 정신과 의원에서 치료받은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은둔형 외톨이를 분류하여 2002년 8월 28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제12차 세계정신 의학대회에서 한국형 은둔형 외톨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이후 KBS의 2005년도 시사프로그램인 '추적60분'의 방송프로그램 '나는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다 : 은둔형 외톨이 실태 보고'와 후속 프로그램인 '나는 방에서 나가고 싶다 : 은둔형 외톨이 실태 보고 2'로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이지민, 2019).

(2)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 공공기관 연구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공공기관 연구에는 청소년위원회(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부적응 청소년지원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히키코모리와 같은 개념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시간적 개념이 뒤바뀐 상태로 방안에 틀어박혀 있는 은둔형 외톨이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인 은둔형 부적응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서는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기초분석 보고서에서 청년 NEET와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와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현재 은둔형 외톨이의 대한 뚜렷한 정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 적응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공기관 연구에서는 청년 NEET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NEET의 실태와 취업으로서의 진입을 위한 보고서가 주를 이루고 있어 NEET와 고립 청년에 대한 인식확대를 통해 다각화된 접근이 요구됨을 알 수 있었다.

(3) 국내외 학위 논문 및 학술논문

국내에서 진행된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 연구에는 히키코모리와 은둔형 외톨이의 사례 비교 및 개념을 다룬 노여진(2007), 이상희(2010), 고스게 유코(2012)의 연구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목회 상담학적 연구로 손은수(2005), 오윤선(2010), 정지현(2011)의 연구가 있다(이지민, 2019 재인용). 또한 은둔형 외톨이 집

단 상담 및 치료에 관한 장경연(2008), 김예슬(2007)의 연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대면적 접촉 관련 연구에 허경운(2005), 김나미(2010), 임용선, 오예슬, 박수이, 이라희, 이영인, 이혜윤(2011)의 연구가 있으며 청소년의 은둔형 외톨이와 인터넷 중독과 관련하여 조영미(2011), 김효순, 박희서(2014), 김효순, 김서연, 박희서(2016)의 연구가 있다(이지민, 2019에서 재인용). 그리고 최근 연구로 오상빈(2019)은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였고, 김성욱(2019)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경찰의 인식 및 개입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지민(2019)은 현상학적 접근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개인의 경험을 연구하고 의미를 도출하였다.

(4) 고립 청년(은둔형 외톨이) 단행본

은둔형 외톨이(여인중, 2005),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이소베 우시오, 2009) 등의 단행본과 같은 문헌자료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와 히키코모리의 차이, 발생원인, 정신질환과 은둔형 외톨이의 감별, 커뮤니케이션, 치료프로그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배경, 스스로의 노력, 가족 또는 사회, 의료기관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립 청년 뿐 아니라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 은둔형 외톨이 검색을 통한 최신 보도자료 분석

주요 포털사이트를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최신 뉴스와 사회적 동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의 중장년 은둔형 외톨이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상승, 국내 은둔형 외톨이 부모협회의 설립과 활동 등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였다.

나. 국내 주요 은둔형 외톨이 온라인 카페 분석

국내 주요 포털의 온라인 카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 은둔형 부모 모임 등의 카페 분석을 실시하였다. 카페 분석은 2019년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루어졌다. 주요 5개 카페에 대한 정보, 가입계기 및 전체 주제어 분석 등을 통해 현재의 고립 청년이 겪고 있는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어려움을 파악하고 공통된 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립 청년에게 가장 주된 어려움은 대인관계/ 불면과 무기력을 포함한 우울함/ 대인기피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과 학업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 등이 주된 어려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긍정적인 정서로는 변화를 시도해 보았다, 변화하고 싶다, 친구를 찾고 싶다는 내용이 가장 많았으며, 위로받고 싶거나 취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도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 고립 청년의 공통된 과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우울함을 극복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하고 싶고, 나아가 소속감을 가진 사회구성원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 파일럿 조사¹⁾

파일럿 조사는 2019년 9월말부터 10월초까지 고립 경험이 있는 청년 4명과 고립 자녀를 둔 부모 1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고립의 배경 및 지속상태, 현재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행동, 고립 생활에 대한 인식 및 기대 욕구 등을 중심으로 세부문항을 구성하였고, 파일럿 테스트 실시 후 면담자의 피드백을 중심으로 수정, 보완 작업을 하였다.

(1) 고립 청년의 고립 배경 및 지속상태

① 고립 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계기는?

표 7. 고립의 시작과 계기

구분	응답 내용
1	- 학교: 초4 때 집단 따돌림 경험으로 시작됨. - 가정: 학교문제로 부모님과 계속 부딪히다, 방에만 있게 됨.
2	- 학교: 고등학교 자퇴. 사람자체를 못 믿게 되었다.
3	- 학교: 고교 학교 부적응, 선택적 철회. - 군대: 19년 2월 전역 후 쉬고 싶어서 2개월 간 집에 있었음. - 직업: 약 5개월간, 다단계 실패.
4	- 학교: 중학교 때 반 친구와 어울리지 못함.

② 현재까지 지속된 기간과 이유는?

표 8. 지속된 기간과 이유

구분	응답 내용
1	- 지속기간: 초 4-6학년. - 지속이유: 그냥 학교는 가고 집에선 방에만 있었음.
2	- 지속기간: 2~3년. - 지속이유: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지 않았음.
3	- 지속기간: 짧게는 4~5개월, 길게는 3년, 군 부적응 포함. - 지속이유: 귀찮아서.(학교생활/ 친해질 필요성 없었음)
4	- 지속기간: 10년 정도. - 지속 이유: 편하고 익숙해져서.

1) 숫자 1,2,3,4는 대상자1, 대상자2, 대상자3, 대상자4을 의미함.

③ 고립 생활을 벗어나고자 노력한 경험은? 노력을 시도한 계기는?

표 9. 은둔을 벗어나고자 한 경험과 계기

구분	응답 내용
1	- 노력을 시도한 것과 계기: 대안학교 진학, 졸업 후 친구가 드러내 준것이 '밖에 생활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함.
2	- 없음. 그냥 가족이 없을 때 그냥 먹을 거 사러 가는 정도.
3	- 경험 없음. 필요를 아예 못느낌. (고교때)
4	- 노력을 시도한 것과 계기 : 고교 진학 후 자퇴, 누구나 다하는 것이니까 갔는데 의미 없었음.

④ 고립 생활을 벗어나 본 경험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던 요소는? 다시 고립하게 된 이유는?

표 10. 도움이 되었던 요소와 다시 고립하게 된 이유

구분	응답 내용
1	- 도움이 되었던 요소: 친구. - 다시 은둔하게 된 계기: 다시 혼자 살게 되면서.
2	- 벗어난 적이 없음.
3	- 고교 때 선택적으로 철회한 것임.
4	- 도움된 것이 없었음.

(2) 고립 청년의 현재의 생활상태

① 섭식상태는? 수면상태는?

표 11. 섭식 및 수면 상태

구분	응답 내용
1	- 식사: 불규칙. - 음주, 약물: 안함. - 수면: 0~10시간 매우 불규칙. 수면의 질은 괜찮음.
2	- 식사: 3끼, 가족과 먹거나 편의점, 굶기 등 방법 다양함. - 음주, 약물: 안함.

	- 수면: 불규칙적으로 잠. 평균 4~5시간.
3	- 식사: 하루 2~3끼. - 음주, 약물: 음주는 한 3주전, 과하지 않음. - 수면: 5~6시간. 새벽 1시 ~ 3시경 취침. 8~9시 기상.
4	- 식사: 하루 2끼, 라면, 배달. - 음주, 약물: 안함, 상비약으로 두통약. - 수면: 5시간 정도 불규칙적으로 자며 깊은 잠을 못잡.

② 주로 하는 일은?

표 12. 주로 하는 일

구분	응답 내용
1	- 현재: 학교, 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받고 있음. - 과거: 깨어있을 때 인터넷. 애니메이션, 만화책, 드라마만 봄.
2	- 현재: 주로 컴퓨터나 게임? SNS. - 총 이용시간? 거의 대부분.
3	- 현재: 핸드폰(3~4시간), 과제. 독서, 글쓰기 정도.
4	- 현재: 게임.

③ 대화 상대는?

표 13. 주된 대화 상대

구분	응답 내용
1	- 현재: 학교 내외로 교우관계를 갖추고 있음. - 과거: 공통관심사(만화)를 공유하는 사람과 SNS로 대화. 거의 매일 많은 시간.
2	- 현재: 없음. - 과거: 거의 없었음. 가족, 외부사람과 대화 없음.
3	- 현재: 가족, 환청. - 과거: 교회친구, 학교 동창.
4	- 현재: 없음. - 과거: 없음.

④ 경제적 상태는?

표 14. 경제적 상태 및 조달 방법

구분	응답 내용
1	- 부모님. 월 150만원.
2	- 부모님. 비정기적으로 5~10만원씩 받음.
3	- 알바로 조달. 50~75만원.
4	- 부모님. 월 30만원.

⑤ 현재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거나 도움이 되는 것은?

표 15. 나에게 도움이 되는 요소

구분	응답 내용
1	- 먹는 거, 좋아하는 일.
2	- 없음.
3	- 없음. 굳이 찾으면 기타연주. 글쓰기 정도.
4	- 게임, 영화감상.

(3) 고립 청년이 경험하는 어려움과 문제행동

① 현재의 나를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표 16. 가장 힘들고 불편한 요소

구분	응답 내용
1	- 경제적 문제.
2	- 신체적 어려움: 없음.
	- 심리적 어려움: 생각나지 않음.
	- 경제적 어려움: 딱히 없음. - 관계적 어려움: 관계는 그냥 다 힘들다.
3	- 신체적 어려움: 가슴통증, 두통.
4	-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② 고립 생활 중 가해나 폭력(물리적, 언어적) 경험은?

표 17. 가해나 폭력 경험

구분	응답 내용
1	- 없음.
2	- 없음.
3	- 없음.
4	- 없음.

③ 고립 생활 중 자해나 자살시도 경험은?

표 18. 자해나 자살시도 경험

구분	응답 내용
1	- 없음.
2	- 있음. 자해, 자살시도.(거의 매일, 팔, 목 뒤를 손톱이나 굵는 자해. 목을 매거나 머리를 박거나, 팔을 긁는 자살시도)
3	- 있음. 자해, 자살시도.(목 조르거나 때리거나 칼을 등) - 환청은 10여년 지속.
4	- 없음.

(4) 고립 청년의 고립생활에 대한 인식

① 나에게 고립이란? 현재의 나를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표 19. 고립 생활의 의미

구분	응답 내용
1	- 의미: 늙,, - 표현: 빠져 나오기 어렵고, 나를 구하려는 사람도 위험함.
2	- 의미: 숨어있는 건지는 모르겠음. 그냥 있는 것. - 표현: 잘 모르겠음. 없는 것 같음.
3	- 의미: 잘 모르겠음. - 표현: 이상하다. 이상하고 어색하다.
4	- 의미: 나에게 가장 편한 곳. - 표현: 어떻게 해야 되지?

② 가족, 친구, 이웃이 나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보는가?

표 20. 타인들의 생각하는 나의 모습

구분	응답 내용
1	- 이웃: 나에 대해 인지하지 못 할 것 같음. - 친구: 재는 원래 저런 애야 할 것 같음. - 가족: 나를 이해하려 하지만 이해못하는 시선으로 바라봄.
2	- 아무 생각 안 할 것 같고 나도 관심 없음.
3	- 착하고 성실하고 잘생겼고 사차원적임.
4	- 이상하다. 남들 다 잘사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를 못할 거 같다. 걱정한다. 어떻게 먹고 살지?

③ 고립 생활을 통해 내가 얻은 것은? 잃은 것은?

표 21. 고립 생활을 통해 얻는 것과 잃은 것

구분	응답 내용
1	- 잃은 것: 건강. - 얻은 것: 시간.
2	- 얻은 것: 없음. - 잃은 것: 모름. 그냥 있는 거니까.
3	- 얻은 것: 엄청난 게임실력, 자격증, 신앙적 가치관. - 잃은 것: 건강, 돈, 시간, 학력, 더 좋은 관계들, 운동감각 등.
4	- 얻은 것: 힘든 때를 벗어남. - 잃은 것: 남들이 평범하다고 말하는 생활.

(5) 고립 청년의 기대 및 욕구

①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얼마나 원하는가?(0~10 사이)

표 22.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은 정도

구분	응답 내용
1	- 6.5 미래와 건강을 위해서 VS 굳이 바뀌어야 하나?
2	- 모름. 2~3.
3	- 9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4	- 8~9, 그러기 위해 마주쳐야 할 두려움을 생각하면 3~4.

② 고립 생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0~10 사이)

표 23. 고립 생활에서 벗어날 가능성

구분	응답 내용
1	- 8, 내가 마음만 먹으면 됨.
2	- 2,3 정도.
3	- 1.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4	- 4.

③ 현재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표 24. 현재 가장 바라는 것

구분	응답 내용
1	- 가고 싶은 곳: 여행.
2	- 가고 싶은 곳: 없음. - 갖고 싶은 것: 없음. - 하고 싶은 활동: 모르겠음. - 듣고 싶은 말: 모르겠음. 원치 않음.
3	- 갖고 싶은 것: 블루투스 이어폰. - 가고 싶은 곳: 좋은 여행지. - 하고 싶은 것: 장편의 소설 쓰기. - 듣고 싶지 않은 말: '너 왜 그래?' 강요적인 말들.
4	- 갖고 싶은 것: 대화를 나눌 친구나 사람. - 가고 싶은 곳: 해외. - 하고 싶은 활동: 대화를 나눌 사람과 같이 한강 소풍가는 것. - 듣고 싶은 말: 친구가 '뭐하냐' 물어봐주는 것. - 듣고 싶지 않은 말: 앞으로 어떻게 살건지.

④ 내가 보는 나의 미래는?

표25. 내가 보는 나의 미래

구분	응답 내용
1	- 모르겠음.
2	- 미래를 생각해 본 적이 없음.
3	- 창창함. - 긍정적 기대: 내 미래는 밝다. 내가 더 성장할 것이다. - 예상하는 어려움: 또 회피할까봐. 숨거나. 다치진 않을까?
4	- 모르겠음.

⑤ 고립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표 26. 가장 필요한 도움

구분	응답 내용
1	- 친구: 반복적으로 불러내주는 친구.
2	- 모르겠음.
3	- 친구: 대화를 해 줌. - 이웃: 잘 모르겠음. - 가족: 벗어나더라도 기다려주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것. - 사회: 돈 말고. 제대로 된 관심을 주는 것.
4	-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법을 알려주는 사람이나 도움.

⑥ 내가 고립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립 청년부' 장관이 된다면?

표 27. 고립 청년부 장관이 된다면

구분	응답 내용
1	- 정책: 밖에서만 구할 수 있는 즐거움 또는 이득을 제공, 스스로 나오게 해야 함.
2	- 생각해 본 적 없음.
3	- 우선할 정책: 전문적 상담. - 단기: 취업. - 장기: 상담. 더 성장할 수 있게 자립을 도와야 함.
4	- 고립되어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개선, 캠페인.

⑦ 자신을 포함한 청소년/청년들의 고립 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표 28. 고립 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것

구분	응답 내용
1	- 애초에 삶에 여유를 주는 것. 입시경쟁 싫음.
2	- 생각이 안남.
3	- 가정교육: 아이에게 제대로 된, 과하지도 적지도 않은 관심을 주고, 아이의 특성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함.
4	- 고립 되기 전에 관심 가져주는 것. 적응 못할 경우 선생님보다는 친구들이 관심 가져주는 것. 결국 적응을 못해서 고립된 건데 관계의 직접적인 대상의 관심이 중요함.

(6) 고립 청년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표 29. 자녀의 어린 시절

구분	응답 내용
• 자녀는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 특별한 점은?	- 태어나서부터 예민하여 안먹고 안잠.
•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나? 지금은?	- 첫째라 예의바르게 키우려고 자주 혼냈고 엄했음. - 지금은 자유롭게 키울 걸 후회되고 또래처럼 밝게 지냈으면 좋겠음.
• 자녀 양육과 관련해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과 후회되는 것은?	- 잘한 것: 없다. 잘못키운 것 같음. - 후회되는 것: 너무 통제하려 했던 것.

(7) 고립 자녀의 은둔배경 및 지속상태

표30. 자녀의 은둔 배경 및 지속상태

구분	응답 내용
• 자녀의 은둔 시기와 계기는?	- 5학년 때쯤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문닫고 만남.
• 현재까지 지속기간과 이유는?	- 3~4년, 이유는 말을 하지 않아 모름.
• 자녀가 은둔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가장 노력한 것은?	- 반복해서 대화 시도를 한 것. 그러나 대화시도에도 말을 하지 않아 답답해서 화내게 되고, 아이는 더 입을 다물게 됨.
• 자녀가 은둔생활을 벗어나 본 적이 있다면 도움이 되었던 요소는? 다시 은둔하게 된 이유는?	- 벗어난 적 없음.

(8) 자녀의 현재 생활상태

표31. 자녀의 현재 생활상태

구분	응답 내용
• 자녀의 섭식상태는?	- 거의 먹지 않음. 먹더라도 아주 조금.
• 자녀가 주로 하는 일은?	- 문을 열지 않아서 모르겠음.
• 자녀의 대화상대는?	- 베프는 없고 조용히 지내는 듯함.
• 자녀의 경제적 상태는?	- 차비, 용돈 명목으로 필요할 때 10만원 정도 줌.
• 현재 자녀를 가장 행복하게 하거나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 방에 혼자 있는 것을 가장 편안해하는 것 같음.

(9) 자녀의 문제행동 및 가족의 어려움

표32. 자녀의 문제행동 및 가족의 어려움

구분	응답 내용
• 현재의 자녀를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 모르겠음.
• 은둔생활 중 자녀의 가해나 폭력(물리적, 언어적) 경험은?	- 없음.
• 은둔생활 중 자녀의 자해나 자살시도 경험은?	- 없음.
• 자녀의 은둔생활로 인해서 나와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 서로 말을 잘 안하게 됨. 가족이 아니라 동거인 같음.

(10) 자녀의 은둔생활에 대한 인식

표 33. 자녀의 은둔생활에 대한 인식

구분	응답 내용
• 나에게 자녀의 은둔이란? 현재의 자녀를 한문장으로 표현한다면?	- 가슴이 미어짐.
• 자녀의 은둔생활로 나와 가족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 얻은 것: 없음. - 잃은 것: 가족애, 감정적 교류, 일상
• 자녀는 자신의 은둔생활에 대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알고 있는가?	- 매우 답답해한다고 생각함.

(11) 자녀의 은둔과 관련된 기대 및 욕구

표 34. 자녀의 은둔과 관련된 기대 및 욕구

구분	응답 내용
• 현재 자녀에게 가장 바라는 것은?	- 평범하게 친구 만나러 나가고 또래처럼 지내는 것.
• 자녀가 은둔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 모르겠음.
• 내가 보는 자녀의 미래는?	- 사회생활 못할 정도로 더 심해질까 걱정됨.
• 내가 고립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립청년부’ 장관이 된다면?	- 가질 수 있게 모두가 상담을 받았으면 좋겠음. - 아이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게 부모상담도 병행 되면 좋겠음. - 비밀보장
•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청년들의 은둔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 부모역할, 양육태도에 관한 교육. - 어리니까, 모르니까, 하라는 대로만 하게 키우지 말고 의견을 수용해주고 인격체로 존중하는 양육 문화가 확산되게 하면 좋겠음.

라. 타 기관 면담 내용 분석

은둔형 외톨이 면담 기록이 있는 타 기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통해 공통성을 추출하고, 주요 키워드를 카페 분석 자료와 통합하여 질문지 수정, 보완작업에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는데, 이를 통해 고립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어려움, 실제로 가장 난감한 부분들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었다. 실제 면담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면담 대상자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었고, 길지 않은 인터뷰 시간동안 현장에서 실재적인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에 집중할 수 있었다.

마. 전문가 검증

4 대상자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한 후 면담자들의 피드백과 대상자들의 사후 피드백들을 조합하여 본 설문지 설계에 반영하였다. 이는 고립 청년들에게 접근성을 높이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며, 인터뷰 시간 동안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함이었다. 주요 연구자들은 수시로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 파일럿 테스트 결과와 피드백 및 대상자들의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에 대해 토론하여 설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표 35. 파일럿 테스트 후 피드백

구분	피드백
면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요시간: 면담대상자 1 : 38분 , 면담대상자 2 : 34분 면담대상자 3 : 60분, 면담대상자 4 : 50분 고립청년 부모 1 : 48분 - 질문지의 구성 순서를 가벼운 항목부터 배열 - 경험하는 어려움에 대해 질문해주고 들어주면서 고립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질문의 순서를 현재의 생활 상태와 바꾸는 것을 고려해야 함 - 양적 설문지를 나중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을듯함 - 부모 설문에서 양육 관련 질문 순서 조정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의 시간이 떠올라 중간에 중단하자고 소리치고 싶었음 - 질문에 비해 생각이 빠르게 따라가지 않음. 아마도 현재 고립 청년들은 대화가 더 어려울 것임 - 대화가 어떤 것인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당황할 수 있음 - 검사는 한결 답하기 쉬움. 그냥 체크하는 건 편함

2. 1대1 면담 결과

연구조사 대상자는 고립 청년 47명 고립 청년의 부모 34명, 총 81명이었다. 먼저 고립 청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31에 제시하였다. 고립 청년들의 거주지는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93.6%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남자는 31명 여자는 16명으로 고립 청년의 남성의 비율(66.0%)이 더 높았다. 고립청년의 나이는 20세~29세 사이가 80.8%로 가장 많았고 외동이거나, 1명의 형제를 가진 경우가 70.2%였다. 출생 순위에서는 맏이이거나 외동인 경우가 72.4%로 가장 많았고, 학력은 대학 중단 이상이거나 대학 졸업 이상인 경우가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학/이사 경험은 없거나 1회인 경우가 49.0%였고, 4회 이상 이사한 경우도 29.8%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 청년의 부모는 절반 이상이 결혼 상태(59.6%)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별거하거나 이혼, 사별한 경우는 38.3%를 차지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부모 모두 정규적인 일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 주거 형태

로 고립 청년들은 부모와 동거하며 생활하는 경우(55.3%)가 가장 많았고 가정의 경제상황은 '중'(57.4%)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고립 청년들은 시간제 경제활동(44.7%)을 가장 많이 해 본 것으로 나타났고, 전일제로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경우도 25.5%를 차지했다.

가. 고립 청년 1대1 면담

(1) 고립 청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36. 고립 청년 인적 사항 빈도

(N=47)

구	분	빈	도	백분율(%)
거주지	서울	32		68.1
	인천경기	12		25.5
	그 외지역	3		6.4
성별	남	31		66.0
	여	16		34.0
나이	17~19세	2		4.3
	20~29세	38		80.8
	30~37세	7		14.9
형제 수	0명	10		21.3
	1명	23		48.9
	2명	11		23.4
	3명	3		6.4
출생순위	만이	28		59.6
	중간	5		10.6
	막내	8		17.0
	외동	6		12.8
학력	중학교 중단	1		2.1
	고등학교 중단	3		6.4
	고등학교 졸업	13		27.7
	대학 중단	21		44.7
	대학 졸업이상	9		19.1

전학/이사 경험	없음	13	27.7
	1회	10	21.3
	2회	4	8.5
	3회	6	12.8
	4회이상	14	29.8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및 동거	28	59.6
	별거	4	8.5
	이혼	10	21.3
	사별	4	8.5
	기타	1	2.1
부의 취업여부	정규직	21	44.7
	임시직	15	31.9
	무직	5	10.6
	무응답	6	12.8
모의 취업여부	정규직	19	40.4
	임시직	6	12.8
	무직	21	44.7
	무응답	1	2.1
현재 동거인	부모님	26	55.3
	조부모	1	2.1
	친구와 동거	1	2.1
	혼자 생활	6	12.8
	기타	13	27.7
가정의 경제상황	상	3	6.4
	중	27	57.4
	하	17	36.2
경제활동 혹은 알바경험	없음	7	14.9
	시간제 3개월미만	13	27.7
	시간제 3개월이상	8	17.0
	전일제 3개월미만	2	4.3
	전일제 3개월이상	12	25.5
	기타	5	10.6
Total		47	100

고립 청년들에게는 고립 청년 척도, 간이정신진단검사, 부모양육척도에 대한 설문 실시되었다. 고립청년의 고립정도와 정신건강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7에 제시하였다. 고립정도는 평균±1표준편차를 기준으로 상, 중, 하로 구분하였다.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에서 고립 청년들은 우울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 이들이 겪고 있는 주된 정서적 고통이 우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강박과 대인예민성이 높았고, 기타와 불안이 다음으로 높았다. 부모양육태도는 과보호와 돌봄 수준에서 비슷한 수준의 돌봄과 과보호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37. 고립 청년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N=47)

	항 목(문항수)	평균(M)	표준편차(SD)/순위
고립정도	전체	71.82	12.57
	상 (N=9. 19.0%)	89.33	3.74
	중 (N=28. 62.0%)	71.89	7.01
	하 (N=9. 19.0%)	54.11	3.33
간이 정신진단 (SCL-90)	신체화(12)	26.00(2.17)	12.02 / 8
	강박증(10)	27.17(2.72)	9.29 / 2
	대인예민성(9)	23.43(2.61)	9.24 / 3
	우울(13)	35.47(2.73)	14.48 / 1
	불안(10)	24.73(2.47)	11.65 / 5
	적대감(6)	13.56(2.26)	6.51 / 6
	공포불안(7)	14.04(2.01)	7.02 / 10
	편집증(6)	12.73(2.13)	6.18 / 9
	정신증(10)	22.04(2.20)	9.36 / 7
	기타문제(7)	17.67(2.53)	7.69 / 4
부모양육태 도	전체	216.89	85.03
	돌봄	38.02	7.15
	과보호	37.26	8.62

(2) 고립 청년의 1대1 면담 결과

고립 청년들은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면담을 통해 본인이 겪고 있는 고립 상태와 그로 인한 어려움, 도움받고자 하는 점 등을 비교적 성실히 답해주었다. 면담 약속을 위한 시도 과정에서는 수차례 연락 시도에도 응답하지 않는 경우, 약속 변경 등 예상했던 어려움이 발생하였으나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연구취지를 설명하고 이들의 이해를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필요했다. 면담과정에 참여하였던 47명의 고립 청년들과의 1대1 면담결과는 표 38과 같다.

고립 청년들은 주로 소수의 사람들과 제한된 소통을 하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 부족한 대인관계 기술로 인한 불편을 두드러지게 호소하였다. 이로 인한 심리적 고통은 특징적으로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주로 밤낮이 바뀌어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으며 외출이 거의 없어 소비성향도 제한적인 경향을 보였다. 고립의 기간은 대부분 1~2년 사이였고 5년 이상의 중장기 고립의 경우 깊은 절망과 무망감의 가속화로 차별화된 접근의 필요성이 나타났다. 고립 청년들은 공통적으로 최종 고립 전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 애를 썼으나 혼자만의 힘으로 역부족이었음을 보고하였다. 고립의 계기는 주로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는 학교 부적응, 대처기술 부족과 매우 높은 관련이 있었다. 부모 양육 태도나 가정문제로 인한 보고는 대인관계적 어려움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립 청년이 지속적으로 관계적 어려움을 겪으며, 정서적으로 우울감, 사회 적응에 대한 불안감을 주로 호소하고 일부 정신증으로 심화된다는 것은 이들에게 심리상담적 접근 및 정신의학적 접근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이들의 심리적 고통을 방지하여 심화될 경우 고립감으로 인한 자해, 자살 시도 또는 가족이나 타인에 대한 감정적 분노 표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났는데,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 내면적 고통에 귀 기울여주고 마음을 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고립 청년들은 선택적으로 관계적 어려움에서 철수하였지만, 공통적으로 시간과 기회를 놓쳐버린 상실감을 주로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상실감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확신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립 청년들은 주변의 공감과 이해를 가장 원했고 궁극적으로 심리적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고적으로 고립의 시초가 된 시점에서 좀 더 구체적인 관심과 도움을 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고립 청년 면담 주요 결과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1.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없다, 또는 1~2명의 제한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음 - 심리적 고립감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화를 나누는 사람도 고립 청년들 또는 이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임 - 관계유지에 개인차가 존재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깊은 대화를 나눌 대상은 제한적이었으며 관계맺음과 유지에 대한 동기도 높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2. 상담이나 정신의학과 도움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답자의 대부분이 상담센터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약물치료 경험이 있음 - 주로 우울증, 불안장애 관련 약물 복용 - 단기 치료 경험과 처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남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및 상담에 대한 만족도는 추가 면담 필요
3. 식사 및 수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사와 수면은 대체로 양호한 편임 - 대부분 2끼 이상의 식사를 하며, 대부분 양적, 질적으로 높은 수면의 질을 유지함. 단, 식사의 영양적 면은 확인되지 않았고 일부 불면 또는 수면유지가 힘든 경우도 있음 - 주로 밤낮에 바뀌어 생활하므로 생활패턴과 리듬자체가 대상자의 자립 및 독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4. 주로 하는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 폰 시간이 매우 길었음 - 혼자만의 공간에서 실제 생활에서의 이루어져야 할 관계적 욕구나 동기가 가상세계로 대체되고 있음 - 인터넷 게임 및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한 관계적 욕구 및 동기 결여, 대처 기술 저하, 전두엽 기능의 비활성화가 예상되어 현실 적응력이 저하되어 있을 수 있겠음 • 자기만의 여가활동을 선택하기도 함 - 선택적으로 영화 감상이나 음악, 독서 등을 함 - 기타 활동으로는 수면, 자격증 공부 등을 하기도 하였음

<p>5. 경제적 상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한적 소비를 하는 편이며 소비욕구도 낮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출 자체가 거의 없으므로 소비욕구도 낮은 편임 - 계획성 있는 소비를 위한 경제관념 부재 및 실질적 생산능력 획득에 곤란을 겪고 있을 가능성 - 관계형성 및 유지에 대한 회피성향이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의지나 욕구의 부재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됨 • 주로 생활비 지출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식비, 여가비 등의 제한적 소비성향
<p>6. 고립 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해온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기간은 개인차가 있으나 1~2년 사이가 가장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부각됨 - 5년 이상의 중장기 고립청년은 자립 및 도전의식이 깊은 절망감과 무기력함으로 가속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고립기간과 정도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 • 고립의 시작은 학창시절 또는 군 제대후 등 관계 가변성이 높은 시기에 집중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및 사회 적응기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경우 고립 상태로 진입할 위험성이 있음 • 고립되기 전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오려는 노력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이 부각됨 - 대인관계 민감성이 높은 특성이 있어 심리상담적 개입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요구됨
<p>7. 주로 집에서만 지내게 된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유지의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내향적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많이 보고한 이유는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어려움이며, 이는 학교생활 부적응과 깊은 연관이 있음 - 내향적 성향이 대인관계에 대한 부담스러움을 가중시켰을 수 있음 • 가정문제는 대인관계유지의 어려움에 비해 다소 응답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어려움을 선천적인 기질 및 기술부족으로 개인화하여 인식할 가능성을 시사함

<p>8. 현재의 나를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력, 체형 관리가 어려움 - 긴장감으로 인한 만성 근육통 - 무기력함 • 정신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울증, 불안감에 대한 보고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남 - 정신증 수준의 보고도 있어 정신의학적 개입도 필요함 •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응답자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호소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생계유지의 어려움이 아닌 이상 직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의지가 저하된 것으로 사료됨 • 관계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관계욕구 등 대인관계의 시작 단계에서 어려움을 보고함 - 고립 청년의 치료적 접근에서 관계 트라우마와 관련된 심리상담적 개입의 필요성이 부각됨
<p>9. 자해, 자살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시도 경험은 없는 경우가 많았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소 희망적인 부분이나 자해에 대한 보고가 많음. 이는 곧 자살 위험성을 높일 수 있음 • 자살시도가 있는 경우 반복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동적이고 반복적인 시도 경향이 나타남 -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 및 시스템 구축 시 자살예방 및 개입에 대한 지침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됨
<p>10. 타인을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한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 및 가족에게 언어적 폭력 행사가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자녀 관계의 불화가 짐작되므로 고립 청년 뿐 아니라 가족의 심리적 안정화가 정책화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위의 반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청년 및 가족에 대한 정서교류 및 의사소통 교육 및 심리상담적 개입 필요

<p>11. 고립 생활로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생활로 얻은 것은 없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얻은 것은 없지만 혼자만의 공간,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을 얻었다고 여기기도 함 - 자아정체성 형성에 대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으로 사료됨 • 잃은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관계를 잃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관계회복에 대한 욕구가 확인되므로 고착화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개입과 대처, 이들에 대한 인내심이 요구됨 - 고립 청년에 대한 이해와 접근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p>12. 타인의 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인 시각에 대한 확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이 고립 청년인 자신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으로 예상함 - 두루뭉술한 중립적 반응이나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회피적 반응도 나타남 - 타인에 비추어 본인 스스로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필요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

고립 청년 면담 결과, 그들은 공통적으로 주변의 관심과 이해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일부 있었지만, 이들은 획일적인 비교와 확인이 아닌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수용과 이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고립의 장기화를 막고 이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세심하게 다루어줄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주요 결과는 표 39에 제시하였다.

표 39. 고립 청년이 원하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1. 가장 필요한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사람의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과 이해, 대화, 멘토링, 커뮤니티 - 따뜻한 시선과 기다려주는 마음 • 필요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지원, 취업지원, K2와 같은 공동체, 심리치료프로그램 - 실제적 생활안정에 대한 정책이 절실함 - 심리적 고통을 세심하게 다루어주길 원함
2. 과거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적인 체계 : 타인들의 관심과 적극적 도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의 도움이나 지원체계를 더 빨리 알았더라면 - 부모님이 좀 더 잘 대처해 주었더라면 - 깊이 있는 이해와 기다림이 있었더라면 • 내적인 체계 : 외적 지원체계에 비해 언급이 적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청소년기와 성인기 초반에 시작된 고립으로 스스로 해결방법을 찾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됨 - 이는 외적 지원체계에 대한 다수의 언급으로 나타남

나. 고립 청년 부모 1대1 면담

고립 청년의 부모를 위한 설문지에는 인구통계학적 정보와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었다.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정보는 표40에 제시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고립 청년의 어머니(79.4%)**인 경우가 많았고, 나이는 **40~50대(59.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은 대부분 대졸 이상(70.6%)**이었다. 부모는 **대부분 결혼 상태(61.8%)**를 유지하고 있었고 별거 또는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가 35.3%로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회사원과 전문직이 각 44.1%로 가장 많았으나 무직인 경우도 23.1%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상황은 '중'(61.8%)**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자녀의 수는 대부분이 2명(67.7%)**이라고 응답하였고, 고립 청년인 자녀는 '만이'(73.5%)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한 가족인원은 3인 가족 또는 4인 가족(73.5%)로 핵가족인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 고립 청년 부모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표 40. 고립 청년 부모의 인적사항 빈도

(N=34)

	구 분	빈 도	백분율(%)
관계	부	7	20.6
	모	27	79.4
나이	40~47세	5	14.7
	48~53세	14	41.2
	54세~59세	11	32.3
	60세 이상	4	11.8
학력	중학교 졸업	1	2.9
	고등학교 졸업	9	26.5
	대학교 졸업	22	64.7
	대학원 이상 졸업	2	5.9
결혼상태	결혼 및 동거	21	61.8
	별거	2	5.9
	이혼	7	20.6
	사별	3	8.8
	기타	1	2.9
직업	회사원	7	20.6
	공무원	3	8.8
	자영업	4	11.8
	전문직	8	23.5
	직업없음	8	23.5
	판매 및 서비스	2	5.9
	기타	2	5.9
가정의 경제상황	상	4	11.8
	중	21	61.8
	하	9	26.5
자녀수	1명	5	14.7
	2명	23	67.7
	3명이상	6	17.6

해당자녀	첫째	25	73.5
	둘째	8	23.5
	막내	1	2.9
가족사항	2인가족	4	11.8
	3인가족	6	17.6
	4인가족	19	55.9
	5인가족이상	5	14.7
Total		34	100

고립 청년의 부모에게는 부모양육척도에 대한 설문 실시되었다. 고립 청년 부모의 부모양육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41과 같다. 결과에 따르면 과보호에 비해 돌봄 점수가 높아, 스스로 생각할 때 통제보다 정서적 따뜻함 및 공감을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들의 응답에서 돌봄과 과보호 점수가 비슷했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이다.

표41. 고립 청년 부모들의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

(N=34)

항 목	평균(M)	표준편차(SD)
부모양육태도	돌봄	39.47
	과보호	35.47

(2) 고립 청년 부모의 1대1 면담 결과

고립 청년 부모들의 면담 주요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고립 청년의 부모들이 보고한 자녀의 은둔 시기는 광범위 하였으나, 대체로 중, 고등학교 시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릴 때 고립이 시작되었을수록 선천적 기질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 진학 후나 군 제대 후에 시작된 성인기 고립도 있었다. 고립 기간은 대체로 2년에서 10년 사이로 시기상 자녀의 중, 고등학교 시절에 시작된 경향이 많았는데, 고립 초기의 대처가 미흡할 경우 장기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생각한 자녀의 고립 이유는 부모의 이혼, 가정불화 등과 같은 가정문제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의 개인적 특성에 대한 언급이 뒤를 이었다. 이는 자녀의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가정 내 문제, 기질적 특성, 학교폭력 문제 등 주요 발달 시기 별 관계 외상과 고립의 연관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부모가 회상하는 양육태도에서는 아이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과잉보호, 성취지향적인 양육태도를 취한 경우 또는 생활에 쫓겨 무관심했거나 아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는 보고가 많았다. 그에 반해 현재의 양육태도는 부모와 자녀의 동일시를 줄이고 수용하며 성장하는 태도를 보고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후회되는 점은 돌봄 부족, 학업강요, 문제 발생 시 대처능력 부족** 등이었다. 자녀가 고립됨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고가 가장 많았는데, 부모들 역시 고립 청년들과 유사하게 **우울, 불안을 중심으로 한 정서적 고통**을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의 고립 상태로 인한 **가족 관계 악화로 심리적인 위축감, 죄책감**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도 가정 붕괴에 대한 우려감과 자녀의 고립 상태가 지속됨에 따른 미래 불안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를 수용하며 성장하는 모습도 나타나나 대체적으로 가족 전체의 삶이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였다. 이는 곧 고립 청년뿐 아니라 그들의 가족에게도 심리상담적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됨을 의미한다. 한편으로, 자녀의 고립 상태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성찰하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 보고도 있었지만, 잃었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나간 시간과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아쉬움, 관계에 대한 후회, 모든 것을 잃은 좌절감,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고통임을 보고하였다. 이는 고립 청년들과 동일한 결과로서 고립 청년과 그의 가족들은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과거로부터 이어진 좌절감 속에 괴로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생각하는 자녀의 미래는 긍정적인 면모도 드러났는데, 자녀가 사소한 일상적 관계를 시도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즐겁게 할 때 희망을 느꼈으며, 사소한 기쁨에서 유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기대하였다. 반면, 고립의 장기화와 군 입대, 취업 문제와 같은 현실적 문제, 회복 시스템의 부재 등으로 어디서도 도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고립 청년 부모 면담 주요 결과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1. 자녀가 고립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해 온	<p>가. 시작 시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대학 졸업 후까지 개인차가 심하나,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중고등학교 시기 - 어릴 때 고립되었을수록 자폐적 성향 등 기질적 영향이 보고됨

<p>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으로 진로설정이 어려워 청년기까지 영향을 미침. - 대학, 군제대 후 등 성인기 고립은 잠재적으로 니트족의 증가와 연결됨 <p>나. 지속 기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차가 있으나 2년~10년이 대부분임 - 고립 초기에 효율적 대처가 없으면 지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사료됨
<p>2. 고립생활을 시작한 계기와 지속된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문제를 원인으로 꼽는 경우가 가장 많았음 - 부모의 이혼, 가정불화, 질병 등 • 자녀의 개인적 특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적 성향,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함, 정신과적 질환 등 - 환경적 영향과 선천적 기질 등의 요인을 중요 항목으로 회고하는 것은 부모교육 및 조기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함
<p>3. 자녀는 어린 시절 어떤 아이? 특별한 점은 없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향적 성향의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적이거나 낮가림이 많다거나 착하고 순진하며 배려많은 아이였다는 등의 내향적 성격특성이 주로 보고됨 • 환경적 영향 : 전학, 왕따, 이혼, 아토피, 과잉보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질 및 환경적 영향의 상호작용과 주요 시기의 관계 외상 경험의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좌절된 점, 관계변화에 아이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부모 역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음
<p>4.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는가? 지금은 어떠한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잉보호형(큰아이라서, 아파서, 유복자라서 등) - 성취지향형(학업성취강요, 통제, 억압, 잔소리 등) - 무관심형(너무 바쁨, 생계유지우선 등) - 이해부족(부정적 의사소통, 공감능력부족 등)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시를 경계함 (자녀와 분리, 부담주지 않음 등) - 수용(경쟁, 학업강요안함, 자녀의 행복을 바램 등) - 역경 후 성장(상담 및 의사소통 공부, 자녀존중, 서로 다름을 인정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 부족에 대한 아쉬움이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킴
5. 자녀 양육에서 가장 후회되는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 부족 : 바쁜 직장, 부모 간병, 가정불화 등 • 대처능력부족 : 고립 초기 대응 실패, 부적절한 양육방식 등 • 학업강요 : 학습 강요, 영재교육, 아이의 자율성 무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고립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며 효과적인 대처방법을 몰랐던 것을 가장 힘들어 함
6. 자녀로 인해 내가 가장 힘들고 불편한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면증, 자녀의 생활리듬에 맞추느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불편, 신경성 두통 등 - 갱년기 질병, 당뇨, 이석증, 종양수술 등 • 정신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안, 걱정, 우울이 주 호소. 병원과 상담을 병행하기도 함 - 분노와 답답함, 죄책감, 회의감, 후회 등을 보고함 - 신앙, 부모모임, 가족상담 등을 통해 극복하기도 함 • 경제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유지 상태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호소는 많지 않음 - 한부모 가정은 경제적 어려움에 더 취약함 • 관계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인관계축소 : 가족 외 대인관계 소원, 협소해짐 - 가정 내 관계악화 : 자녀의 폭력적 발언, 대화 단절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족 전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침 - 정신적 고통에 대한 호소가 가장 특징적으로 이는 부모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전문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7.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 붕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전체의 분위기가 가라앉고 소통이 어려움 - 고립자녀가 폭력성을 보이거나 자살을 예고하는 경우 가족들까지 우울증을 앓는 등 고통이 심화됨 - 여행, 외식, 손님초대 등 가족 행사 불가능 • 자녀의 미래에 대한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 지속적 고립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통조차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고통 속에서도 자녀를 이해하며 상황 자체를 수용하며 살아감 - 가족 전체가 삶이 휘청거리는 경험을 하면서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고통이 심각하여 이에 대한 개입이 필수적임
<p>8. 자녀의 고립생활로 얻은 것과 잃은 것</p>	<p>가. 얻은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적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의 여유, 겸손함, 감사함, 내려놓음, 책임감, 자녀에 대한 공감, 가족의 소중함, 폭 넓은 인생관,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삶의 이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 신앙 등 • 새로운 인간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청년 부모모임을 통해 깊은 인간관계 형성 • 긍정성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많음 - 집에 있으니 안전함 - 얻은 것도 잃은 것도 없음 <p>나. 잃은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과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간 시간을 잃음 - 자녀가 일상적 삶을 잃음 - 따뜻한 가족관계를 잃음 - 나의 노후를 즐길 시간을 잃음 • 모든 것을 잃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자신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음 - 경제적, 관계적 어려움 속에서 억울한 채 갇혀 있음 - 모든 것에 두려움, 열등감 - 부모로서 성찰의 기회였지만 지나간 시간과 기회, 관계에 대한 후회와 심리적 고통이 드러남
<p>9. 내가 보는 자녀의 미래</p>	<p>가. 긍정적 기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 회복의 불씨로 희망을 가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와는 식사를 함, 웃기 시작함, 악기를 배우기 시작함 • 선한 영향력에 대한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경험이 비슷한 상황의 주변사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 - 부모와 사회의 도움이 재사회화에 기여 <p>나. 예상되는 어려움과 걱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의 장기화에 대한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생활이 장기화 되어 사회로부터 격리될 걱정 - 회복의 기미가 없음에 대한 무망감 - 구체적, 지속적 도움이 부족한 사회인식과 시스템 • 현실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입대, 경제적 자립, 학비, 비만 등 • 회복 시스템의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 예고, 깊은 절망, 자해, 자살생각 등을 다룰 능력이 없음. 깊은 좌절과 절망 - 현실적인 접근과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임
10. 자녀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범함이 곧 기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문을 열고 나왔으면 - 사회 일원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았으면 -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았으면 • 회복과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으면 - 약점을 신앙으로 회복하기를 - 평화로웠던 모습을 되찾기를 - 집안의 기둥이 되기를 - 평범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원하고 있음

다음으로 고립 청년 부모가 원하는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은 표 43에 제시하였다. 고립 청년의 부모들은 아이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양육을 도울 수 있는 부모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적으로 다양함이 존중받을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는 분위기, 공동 생활 공간 조성과 고립 청년의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멘토링 시스템에 대한 요구도 많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바라며 심리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였다. 이는 고립 청년들의 요구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결과이며,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절실한 욕구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는 고립 청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이 시행되기를 원했는데, 고립 청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전문상담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군 입대와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 고립 청년들이

사회 복귀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의 운영과 확충, 소통공간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부모로서의 역할과 긍정적 양육태도를 교육받고자 하며 이를 소통할 수 있는 부모 자조 공간과 같은 시설 확충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고립 청년 부모가 원하는 필요한 정책이나 주요 프로그램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p>1. 청소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소의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 - 문제 대처 능력 교육 • 찾아가는 멘토링, 고립 청년을 위한 전문 상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롤 모델이 필요함 -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상담 시스템 도입 •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시, 경쟁 위주의 획일화된 사회 분위기 지양 - 다양성 존중, 부정적 인식 개선, 건강한 공동체 • 제도적 사회시설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와 같은 제도적 안전장치 확산 - 어울림 기회 제공 - 부모교육 및 전문 상담 시스템, 제도적 사회시설 마련을 통해 이해와 수용의 폭이 넓어지길 기대함
<p>2. 현재 자녀와 같은 고립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p>	<p>가. 주변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과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적 시선보다는 그 자체로 인정해주기 - 비슷한 경험이 있는 선배의 멘토링 - 학교나 주변 어른들의 관심 - 초기 대응 <p>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관된 정책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적 접근의 시스템 구축 - 정부 차원의 근본적 대책 - 전문상담시스템 도입(전문가 양성, 연결시스템 확충) - 입대관련 지원정책 - 일자리 문제 - 취업 후 적응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p>지원하는 장기적 대책 필요, 대인관계를 어려워하는 특성 고려한 일자리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마련(K2, 하자센터 같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울림 기회 제공(소통 공간 필요) • 부모교육 제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청년과 관련된 정보와 경험의 부재는 문제를 심화시킴 - 부모로서 대처(의사소통방법, 양육태도 등)를 배우고소통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함 - 현실적이고 제도화된 일관성 있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음
--	--------------------------------------------------------------------------------------------------------------------------------------------------------------------------------------------------------------------------------------------------------------------------------------------------------------------------------------------------------------------------------------------------------------

(3) 면담자들의 보고를 통한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면담자들은 고립 청년과의 면담 후에 면담 후 보고를 하였다. 고립 청년과 그의 부모들을 만나면서 현장에서 느껴진 부분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고립 청년 또는 고립 청년의 부모를 면담하면서 면담자들이 보고한 내용은 표 44와 같다.

표 44. 고립 청년 면담자들이 제시한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청소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적 안정과 자립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수당, 취업수당 - 1대1 멘토링, 동반자 프로그램 - 직업교육, 경제적 문제 복지상담 지원 - 경제적 정신적 문제에 대한 복지 정책 • 사회체계 내의 예방 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돌림, 외톨이 등의 조기 발견과 지자체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졸업 후에도 추적 가능한) - 외국 유학 후 고립된 청년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 -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상담 시스템 도입 -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적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리시스템 - 세심한 면담 후 개입별 방향에 맞는 프로그램 제공 • 전문적인 상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적 상담 제공 - 인지적 왜곡의 타당화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와 공간 -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 안정 쉼터 • 공동생활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2와 같은 제도화 된 공동 생활 시설 - 만남의 장소를 제공 - 식사와 자유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곳 - 공감인, 우울증 모임 등 자조 모임 - 사회복지적 접근, 자립지원, 정책차원의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통한 장기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함
--	--------------------------------------------------------------------------------------------------------------------------------------------------------------------------------------------------------------------------------------------------------------------------------------------------------------------------------------------------------------------------------------------

표 45. 고립 청년의 부모 면담자들이 제시한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항 목	주요 응답 내용
<p>청소년/청년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립 청년에 대한 라포 형성 및 멘토링, 전문적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타인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데이케어센터) - 집으로 찾아가는 고립 청년 멘토링/동반자 - 고립 청년 방문 상담자 양성 및 지원 - 은둔 전문상담자 •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대 입대 문제 - 고립 청년에 적합한 일자리 - 사회적 인식 개선, 경제적 지원, 공동체 시설 • 고립 청년 대책 수립 및 운영 총괄센터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관리 체제 도입 - 장기적인 서포터즈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은둔형 외톨이 센터 - 집단따돌림이나 학교 부적응 등으로 학교 이탈 후 정부차원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매뉴얼 마련 - 지방 센터 설립으로 접근성 강화 - 부모 면담 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접근과 정부 차원의 총괄센터에 대한 요구가 드러남

V. 논의 및 정책 제언

1. 논의

본 연구는 고립 청년과 고립 청년을 둔 부모들의 삶과 어려움을 집중 조명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제안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47명의 고립 청년과 34명의 고립 청년 자녀를 둔 부모를 설문조사 및 인터뷰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립 청년은 여성보다 남성이 많았고 20대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의 경우 남성의 비율이 여성보다 많다(이시형, 여인중 2005)는 연구와 일치하였고 한국의 청년 니트족이 15세~29세가 거의 대부분(OECD, 2017)이라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은둔형 외톨이가 사춘기 내지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나타나며 20대 후반까지 나타난다(박현숙, 2004)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둘째, 고립 청년들은 형제순위에서 외동이거나 첫째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대학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정규직 직업을 가진 부모와 동거하며 시간제 경제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년 니트의 특징과 유사한데, 청년 니트족의 장기화가 곧 고립 청년의 확대 위험성과 연결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고립 청년 척도에서 고립 청년들은 대부분 중상 이상의 고립증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고립 청년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대인 관계에서의 혼란감, 일상생활에서의 무력함이 심각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넷째, 고립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측정한 결과 고립 청년들은 우울감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신체화, 불안감, 대인예민성을 주된 정서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립으로 인한 내면화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립 청년을 위한 정책적 접근에서 정서회복을 위한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내면적으로 억압되고 누적된 정서 회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 프로세스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들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서는 전문적이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우울 감소를 위한 구체적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또한 우울감 회복을 시작으로 대인관계에서 긴장과 불안을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고립청년과 비슷한 연령의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간이정신진단

검사 결과(박용민, 2011; 이동엽, 2015)와 비교하였을 때도, 고립 청년들이 더 높은 수준의 정신건강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고립 청년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에서는 정서적 따뜻함과 통제감을 비슷한 수준으로 느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립 청년에게 부모양육태도의 일관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적 특성 및 주요 시기의 결정적 사건에 대한 초점화를 통해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 고립 청년과의 면담 결과, 청년들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거나 소수였고, 대인관계에 대한 불편감과 우울, 불안을 주호소로 상담이나 정신 의학과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청소년 위원회(2005)의 연구에서 우울증에 대한 진단명이 가장 많았던 것과 일치하였다. 또한 대부분 10대~20대 초반에 고립이 시작되었고, 최종 고립 이전 어떻게든 집 밖으로 나오려고 노력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이는 은둔 경험자들은 은둔 전 세상의 관계로부터 상처받는 경험을 하며 무작정 세상과 단절하기보다 지각이나 조퇴, 자퇴 전 휴학 등의 중간 단계를 거쳐 최종 고립에 이르게 된다는 이지민(201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관계적 상처의 징후가 있을 때 학교 관계자와 주변 친구, 학부모가 섬세하게 포착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고립 청년들은 밤낮이 바뀌어 스마트폰/인터넷 게임을 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세상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했을 때 결국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고립을 선택하게 되고, 이로서 타인의 시선과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되어 더욱 더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인터넷/스마트폰은 잠시나마 그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하는 유일한 안식처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이들은 고립으로 인해 지나간 시간과 기회에 대한 상실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사회적 재적응을 원하는 마음으로서 혼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으로,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 이해와 공감, 공동체, 커뮤니티 등을 원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고립 청년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포인트로 나를 이해하는 선배나 친구, 이해와 기다림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주는 관심을 주는 가족, 나를 끝까지 도와주는 심리상담 전문가와 같은 건강한 관계로부터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나아가갈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체계화된 사회적 지지체계가 반드시 필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일곱째, 고립 청년의 부모들은 거의 대부분 어머니가 면담에 참여하였고, 연령은 대부분 40~5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고 중산층이면서 회사를 다니는 핵가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립 청년 대상 자녀들은 만이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고립 청년들의 설문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반면, 부모가 보고한 양육태도의 경우에는 고립 청년이 보고한 바와 다른 결

과가 나타났는데, 부모들의 양육태도 결과에서는 자녀를 통제하기보다 정서적 따뜻함 및 공감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립 청년 당사자와 부모 간의 양육 태도 인식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정 내 양육환경에 대한 좀 더 심도 있는 탐색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산층의 대졸 부모가 첫째아이를 양육하면서 가정적, 사회적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발달적 과제를 동시에 수행함에 있어 각각의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영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게 되는 과정을 밝히기는 간단하지 않으며 정형화되어있지도 않고, 은둔형 외톨이로 활동하게 되는 과정도 개별적이며 각각 다르다고 한 부분(청소년위원회, 2005)과 일맥상통한다.

여덟째, 부모들은 자녀들의 고립 원인으로 가정문제, 자녀의 기질적 특성, 학교 부적응 등을 언급하였고 주로 중, 고등학교 시기에 고립이 시작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은둔형 외톨이의 원인을 선천적 장애와 성격, 가정으로부터의 자극, 학교와 사회생활 적응실패, 인터넷의 빠른 보급과 게임중독으로 분류한 허경운(2005)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은 자녀의 고립으로 인해 양육 자신감이 저하되는 경험을 하였다. 또한 자녀를 위한 돌봄 부족, 대처능력 부족, 학업 강요 등을 후회하였고 자녀 관점에서의 이해가 부족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들이 자녀 고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한다고 한 김신아(2019)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고립 청년들이 보고한 고립 원인들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은둔형 외톨이가 형성되는 원인 중에서, 개인의 성향이나 기질적인 원인과 자기 기대수준과 현실의 차이(김종진, 2006; 이소베 우시오, 2009), 가족관계에서 신뢰를 받아보거나 긍정적인 양육을 받아본 경험의 부재(김종진, 2006; 이향남, 2008), 학교에서 왕따나 폭력으로 인한 학교생활 부적응 경험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김유숙 외, 2012; 여인중, 2005; 이향남, 2008) 명확히 범주화 되지 않는다(청소년위원회, 2005)고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 결과 역시 개인적 특성과 가족요인, 환경적 맥락이 상호작용하여 개인차를 만들어 낸 것으로 이해되었다. 종합하면 최종 결과인 ‘고립’에 이르기까지 가정과 환경, 개인적인 요소들이 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이 다시 확인되었다.

아홉째, 부모들은 고립 청년인 자녀로 인해 정서적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낀다고 보고하였고, 주로 불안, 걱정, 우울, 분노, 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으로 고통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 역시 털어놓지 못함으로 인해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가족 내 스트레스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의 은둔과 관련하여 부모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가족, 직장 안에서 관계적 갈등을 겪게 되며 내면적으로는 주체가 안되는 부정적 감정에 괴로워한다(김신아, 2019)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곧 부모들의 정서적 문제에 대한 개입 필요성을 시사하며, 고립 청년과 가장 가까운 타인으로서 지지자원이 될 수 있는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회복 프로

그램이 절실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부모 역할에 대한 교육과 상담치료적 접근이 필히 요구되는 부분으로 사료되었다. 이는 곧 은둔형 외톨이 치료에서 가족치료, 교육을 제일 먼저 해야 한다는 연구(厚生労働省, 2004; 황순길, 2005, 김신아, 2019 재인용)와 맥을 같이 한다.

열째, 부모들은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며, 고립 상태가 지속되어 사회에서 도태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아(2019)는 은둔형 외톨이 부모들이 자녀의 탈은둔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찾고 전문기관과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자료 부족, 탈은둔을 돕기 위한 기관의 전문성과 지속성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는데 이와 일맥상통하였다. 이는 또한 고립 청년에 대한 전문성과 깊은 이해를 가진 체계적인 기관에 대한 부모와 청년들의 요구와 일치하였는데 결과적으로 고립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어도 체계적인 도움을 받을 곳이 없다는 깊은 좌절로 반복되지 않도록 고립 청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 고립 단계에 따른 접근이 가능한 매뉴얼북, 광역 센터 등의 공적 체제로서 청년들의 사회 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궁극적으로 부모들은 자녀가 고립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가장 원하며, 안전한 공적 체제 안에서 마음을 치유하고 사회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책 제언

면담에 참여한 고립 청년과 그 부모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에 관심을 기울여주는 실태조사를 받기는 경우가 많았고 비교적 솔직하고 성실하게 면담에 응해주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의 공감과 이해, 멘토링, 커뮤니티 생활 및 사회진입을 위한 제도적 공동체 시설, 복귀프로그램의 확대 시행을 원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계로부터 상처받은 청년 및 부모와 가족들이 회복할 수 있는 공적 지원체계 및 전문 심리치료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또한 문제 발생 초기에 부모 및 학교, 주변의 적극 대처가 가능하도록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할 수 있다.

첫째, 청년 및 부모의 우울, 무기력,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이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정책마련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심리적 회복에 대한 절차가 체계적이고 우선적이어야 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이 이대로 방치될 경우 10~20년 이내 일본의 경우처럼 중장년기 은둔형 외톨이라는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

둘째, 고립 청년은 20대 초에서 20대 후반의 남성이 가장 많고 대학중퇴 및 대졸자가 다수인 점을 감안하여,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지원정책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 고등학교 학교적응, 졸업, 대학 진학, 군 제대 후 등 관계 변화의 가변성이 높은 시기에 효율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자조집단, 전문가 교육, 내적 힘 강화 모임, 주변 지지자원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적 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셋째, 대상자들의 고립기간, 사회참여 정도, 활동 가능한 심리적 에너지 수준 등에서 편차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은 고립기간이 1~2인 경우와 5년 이상 된 경우, 사회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와 가벼운 사회활동을 원활히 하는 등 편차가 컸다. 따라서 향후 정책지원에서는 대상자들을 고립 청년의 특성을 가진 동일한 집단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고립생활의 시작 단계 vs. 장기 고립 상태를 구분하거나, 심리적 에너지와 사회참여 동기 수준에 따라 지원활동을 달리 하는 등 대상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자녀에 대한 부모의 과잉 기대와 양육 상 시행착오가 고립 청년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부모-자녀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회복 프로그램과 예방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특히 첫 부모역할을 하게 되는 첫째 자녀 양육에서 자신과 자녀에 대한 과도한 동일시를 줄이고 건강한 심리적 경계를 수립하여 관계적 폭력을 반복하지 않도록 부모교육이 체계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의 고립으로 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및 관계 방식을 교육하고 심리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학교 적응과 또래 관계 문제가 고립의 시작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작점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대처체계가 필요하다. 폭력 및 또래관계 문제는 관계의 문제를 넘어 피해자를 고립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으므로 공교육 내에서 이러한 위험성에 대한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주변지지 자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최대한의 초동대처를 통해 학교 이탈을 막는 것이 고립 청년의 확산을 초기에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여섯째, 고립 청년과 그 부모들은 절실히 사회 복귀를 원하나 그 시작점을 찾기 어려워하므로 작은 시도가 성공경험으로 이어져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고립 청년과 부모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복지 안전망 및 사회지지망 수립 정책을 정책적으로 검토하여 맞춤 지원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이들에 대한 생활공간 제공, 자조적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지속적 개인 및 집단상담 참여기회 제공, 매뉴얼북 마련, 광역 및 지역 센터 설립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정책의 일관성 및 안정성이 중요하므로 정부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VI. 실태조사 합의 및 면담조사 애로사항

1. 실태조사 합의

첫째, 고립 청년 현황 파악을 위한 최초의 실태조사라는 의의가 있다. 면담 대상자의 제한적인 인원으로 인해 명확한 실태조사와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본 조사를 통해 고립 청년에 진입하게 되는 주요 원인과 동기, 고립 청년 및 부모들의 현실적 여건과 정책적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고립 청년 관련 유사 사업 진행시에 구체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전문 상담자가 직접 찾아가서 1대1 면담을 진행했고 그것이 면담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면담 대상자들은 자신들이 참여했던 집중적인 탐침 조사나 병리적 초점의 접근으로 인해 2차 심리적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음을 토로하며 직접 찾아와주는 접근 방식에 만족하였고 이는 면담 진행자와의 라포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조사 내용의 진솔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고립 청년 관련 조사 및 정책적 지원 운영 시에도 면담 대상자들의 마음을 열고 원활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베이스의 장기적 시각을 통한 전문적인 접근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고립 청년으로 진입하게 되는 주요 동인이 학교 부적응 및 또래 관계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학교나 주변인들의 초동대처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해자/피해자 분리, 단순 행정 대처가 아닌 전문상담 기관 및 관계부처의 노력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최후의 수단으로 고립되기 이전에 이들은 도태되지 않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간이 있으므로 학교적응 문제의 초기 발생 시 심리상담적 접근과 함께 관계기관의 적극적 협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개인적 특성이나 가족 문제인 경우에도 부모 교육과 멘토링, 심리상담적 접근을 통해 고립 시작 및 지속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2. 실태조사의 애로사항과 제한점

첫째, 면담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했다. 고립 청년의 특성상 과거에 대한 후회, 현 상황에 대한 분노감 등으로 감정적 격동이 생길 수 있어 2인 1조 면담 진행이

나 가족 구성원 재가 시 면담 진행 등의 보조적 대처 수단이 필요했다. 향후 조사 진행시에도 면담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만남 자체가 성사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했다. 고립 청년들은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있었음에도 3~4번의 전화를 시도한 후에야 연락이 닿는 경우가 많았고, 면담 약속 장소에 나오지 않거나 면담 직전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상황 발생이 빈번했다. 이는 밤낮을 바꾸어 생활하는 경향이 있는 그들의 생활 패턴과도 깊은 관계가 있었고 대인관계에 대한 높은 경계심으로도 이해되었다. 따라서 면담 전 연락 단계에서부터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심리상담적 기술이 요구되었다. 면담의 성사단계에서도 출발 전 반복 확인, 문자와 연락을 통한 이중 확인을 통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다. 또한 연락 두절자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하여 실행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도 면담 대상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행동지침 등의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조사는 서울 경기 지역의 고립 청년이 면담 대상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전 지역의 고립 청년을 대표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조사에서는 표집 단위를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국내 고립 청년의 이해로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조사는 고립 청년들과 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후 정책제안을 위해 수행되었으나, 고립 청년의 연령이 대부분 20대인 경우가 많아 니트족과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고립 청년과 청년 니트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고려하여 청년들의 사회 적응을 확대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서울:중앙문화사
- 김기현, 이운주, 유설희(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연구Ⅱ.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신아(2019). **은둔형 외톨이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갈등과 영적 경험에 관한 연구**. 고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용민(2011). 성인들의 스마트폰 중독과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유숙, 박진희, 최지원 (2012). 은둔형 외톨이 : 세상으로 나오기가 두려운 아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서울: 학지사.
- 김종진(2006). 달팽이 껍질 속으로 숨은 외톨이. 서울: 해피아이.
- 끼코모리 사례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기독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여진(2007). 일본의 히키코모리(ひきこもり)와 한국의 은둔형 외톨이의 비교 고찰 : 발생원인과 대책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2004). **사회적 히키코모리에 관한 일 연구: Bowen의 이론을 통해 본 히**
- 여인중(2005). 히키코모리. 서울: 지혜문학.
- 여인중, 이영식 (2012). 청소년정신의학, Part3-23 은둔형 외톨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편저). 서울: 시그마프레스.
- 오상빈(2019).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 프로그램(HCH)개발과 효과.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아름(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 접촉경계혼란의 매개효과**.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동엽(2015).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실태와 스트레스반응의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소베 우시오(2009). 스타벅스로 간 은둔형 외톨이- 세상과의 소통을 갈구하는 23명의 이야기. 이성동역 서울:대숲바람
- 이시형 외 (2000). 외톨이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부적응.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지민(2019).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수(2018).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 자기 비난과 수치심의 매개효과**.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향남(200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계적 통합 지원 모형 개발에 관

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옥분(2005).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채창균, 양정승, 김민경, 송선혜(2018).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 해외사례 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294.

청소년위원회(2005).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 부적응 청소년 지원방안*.

한우리(2011). *혈액투석 환자의 심리 분석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를 사용하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경운 (2005). *기업은둔형 외톨이의 사회문제와 분석에 관한 연구*. - 전화 상담, 사이버상담사례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 록

■ 부록 1. 청년용 설문지

설문지(청년용)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선다형 질문지와 인터뷰 형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부호화 또는 전사되어 통계 처리됩니다. 옳고 그름의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이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설문에 응하실 경우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설문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될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녹음에 대한 내용

- 1) 녹음 된 내용은 비밀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 2)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4개월 내에 폐기 됩니다.

***위의 설문 참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

2019. 서명 _____

*** 인적사항**

1. 거주지 _____시
2. 성별 남자 여자
3. 생년월일 : _____년 _____ 월
4. 형제 : 형제 수 (명)
 출생순위 () 1. 맏이 2. 중간 3. 막내 4. 외동
5. 학력
 초등학교 학업중단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학업중단 중
 학교 졸업
 고등학교 학업중단 고등학교 졸업 대학 학업중단
 대학 졸업 이상
6. 전학, 이사경험: 시기(), 횟수(), 이유()
7. 부모의 결혼상태
 결혼 및 동거 별거 이혼 사별 기타
8. 부모의 취업여부
 아버지 : 정규직 임시직(비정규직) 무직
 어머니 : 정규직 임시직(비정규직) 무직
9. 현재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중복응답 가능)
 부모님 조부모 친척
 친구와 동거 혼자 생활 기타: _____
10. 가정의 경제 상황
 상 중 하
11. 경제활동 혹은 알바 경험
 없음 시간제 3개월 미만 시간제 3개월 이상 전일제 3
 개월 미만 전일제 3개월 이상 기타: _____

I. 다음은 평소의 생활이나 마음 상태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내 생각과 느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나는 평소에 ……………”	전혀 아니 다	다소 아니 다	다소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가능하면 혼자 있고 싶다.				
2. 내가 가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3. 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한다.				
4. 학교나 사회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5.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6.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비교적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7. 사람들을 좀처럼 믿기 어렵다.				
8.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9. 나는 많은 시간을 빈둥거리며 지낸다.				
10. 나는 남들에 비해 내세울만한 특출한 능력이 있다.				
11. 성적이나 취업에 대한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럽다				
12. 밖에서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어도 피하고 싶다.				
13.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있다.				
14. 사람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다.				
15.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6. 내 방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17. 낮잠을 많이 잔다.				
18. 나는 아무 것도 해내지 못할 것 같다.				
19. 사람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왠지 두렵다.				
20. 앞으로 취업이나 직장생활을 잘할 수 없을 것 같다.				
21. 친구들과 전화를 주고받는 일이 거의 없다.				
22. 앞으로 이성관계나 결혼생활을 잘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				
23. 친구를 집에 데려오는 일이 거의 없다.				
24. 내 외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부담스럽다.				
25.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26. 집에 있을 때는 주로 인터넷이나 게임 등을 많이 한다.				
27. 모임이나 단체 활동 시 같이 지낼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된다.				
28. 부모님과 거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				

Ⅱ. 다음은 지난 1주일 사이의 느낌이나 경험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나와 가장 가깝다고 느껴지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지난 7일 동안 나는....."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 이었다	약간 심했다	아주 심했다
1. 머리가 아팠다.					
2. 신경이 예민하고 마음의 안정이 안 되었다.					
3. 쓸데없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4.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났다.					
5. 성욕이 감퇴되었다.					
6. 다른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보였다.					
7. 누가 내 생각을 조정하는 것 같았다.					
8.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 같았다.					
9. 기억력이 좋지 않았다.					
10. 조심성이 없어서 걱정이었다.					
11.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					
12. 가슴이나 심장이 아팠다.					
13. 넓은 장소나 거리에 나가면 두려웠다.					
14. 기운이 없고 침체된 기분이 들었다.					
15.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16.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하는 헛소리가 들렸다.					
17. 몸이나 마음이 떨렸다.					
18. 사람들이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19. 입맛이 없었다.					
20. 울기를 잘 했다.					
21. 이성을 대하면 어색하거나 부끄러웠다.					
22.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기분이 들었다.					
23. 별 이유 없이 울화가 치밀었다.					
24. 자신도 견잡을 수 없이 울화가 치밀었다.					
25. 혼자서 집을 나서기가 두려웠다.					
26. 자책을 잘 했다.					
27. 허리가 아팠다.					
28. 하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막히는 기분이었다.					
29. 외로웠다.					
30. 기분이 울적했다.					

"지난 7일 동안 나는....."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 이었다	약간 심했다	아주 심했다
31. 매사에 걱정이 많았다.					
32.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었다.					
33. 두려운 느낌이 들었다.					
34. 쉽게 기분이 상했다.					
35. 나의 사사로운 생각을 남이 아는 것 같았다.					
36.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 못하는 것 같았다.					
37. 다른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거나 나에게 불친절하다고 느꼈다.					
38. 매사에 정확을 기하느라고 일을 제때에 해내지 못했다.					
39. 심장이 마구 뛰었다.					
40. 구역질이 나거나 토했다.					
41.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았다.					
42. 근육통 또는 신경통이 있었다.					
43.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감시하거나 나에 관해서 속덕거리는 것 같았다.					
44. 잠들기가 어려웠다.					
45. 매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해야만 마음이 놓였다.					
46. 결단력이 부족했다.					
47.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가 두려웠다.					
48. 숨쉬기가 거북했다.					
49. 목이 화끈거리거나 찢 때가 있었다.					
50. 어떤 물건이나 장소 혹은 행위가 겁이 나서 피해야 했다.					
51. 마음 속 이 텅 빈 것 같았다.					
52. 몸의 일부가 저리거나 찌릿찌릿했다.					
53. 목에 무슨 덩어리가 걸린 것 같았다.					
54.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았다.					
55. 주의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다.					
56. 몸의 어느 부위가 힘이 없었다.					
57. 긴장이 됐다.					
58. 팔 다리가 묵직했다.					
59.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60. 과식했다.					

"지난 7일 동안 나는....."	전혀 없었다	약간 있었다	보통 이었다	약간 심했다	아주 심했다
61. 나를 쳐다보거나 나에게 관해서 이야기 할 때는 거북해졌다.					
62.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 생각 같지 않았다.					
63. 누구를 때리거나 해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64. 새벽에 일찍 잠이 깼다.					
65. 만지고 샘하고 씻고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반복했다.					
66. 잠을 설쳤다.					
67. 무언을 때려 부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68.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생각이나 신념을 갖고 있었다.					
69.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나의 언행에 신경을 쓰게 됐다.					
70. 마트나 극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거북했다.					
71. 매사가 힘들었다.					
72. 공포에 휩싸이는 때가 있었다.					
73.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먹고 마시기가 거북했다.					
74. 가족이나 주변사람들과 잘 다뤘다.					
75. 혼자 있으면 마음이 안 놓이거나 무서웠다.					
76. 다른 사람들이 내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77.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고독을 느꼈다.					
78. 친절부절못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79. 허무한 느낌이 들었다.					
80. 낯익은 것들도 생소하거나 비현실적인 것처럼 느꼈다.					
81. 고함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졌다.					
82. 사람들 앞에서 쓰러질까봐 걱정했다.					
83. 그냥 놓아두면 사람들에게 내가 이용당할 것 같았다.					
84. 성 문제로 고민했다.					
85. 내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한다고 느꼈다.					
86. 무슨 일이든 조금해서 친절부절 못했다.					
87. 내 몸 어딘가가 병들었다고 생각했다.					
88. 늘 남과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었다.					
89. 죄를 지었거나 잘못을 저질렀다고 느꼈다.					
90. 내 마음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Ⅲ. 다음은 내가 부모님에게 느껴왔던 점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내 부모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2. 내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 주었다.					
4. 나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5.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6. 나에게 다정다감했다.					
7.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8. 나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9.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0. 나의 개인생활을 침범했다.					
11.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겼다.					
12. 나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13. 나를 어린애 취급하였다.					
14.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는 듯 했다.					
15.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6.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17.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었다.					
18. 나와 가끔 이야기 하였다.					
19. 부모님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20.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겼다.					
21.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22.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 주었다.					
23. 나를 과잉보호 하였다.					
24. 나를 칭찬해 주었다.					
25.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IV. 다음은 생활 속에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편안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있나요?
(사이버상에서 모르는 사람과 채팅하는 것은 제외)
() 없다 () 1명 () 2~3명 () 4명이상 ** 있다면 누구?

2. 상담센터나 정신의학과에 방문해서 도움 받으신 적이 있나요?
() 없다 () 있다 있다면 기간:_____ 복용중인 약: _____

3. 식사 및 수면상태는 어떠한가요? (식사 횟수 및 방법, 취침/기상시간, 잠의 질)

4. 방(집)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중복 체크 가능)
() 인터넷 게임/스마트폰 () 영화(TV) () 음악 감상 () 책읽기 ()
뉴스검색 () 기타:_____

5. 경제적 상태는 어떠한가요?

- 한달에 필요한 액수? _____ 원

- 용도? _____

- 조달방법? () 가족 및 부모 () 알바 () 직업 () 기타:_____

6. 고립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7. 주로 집에서만 지내기 시작한 이유는? (중요한 순서대로 중복 체크 가능)

() 신체나 용모에 관련된 이유로

() 학업능력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 학교/사회생활이 부담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서

()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이 싫어서

()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질병 등)

() 원래 비사교적이고 내향적이어서

()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8. 현재의 나를 가장 힘들고 불편하게 하는 것은?

- 신체적 어려움: _____
- 정신적 어려움: _____
- 경제적 어려움: _____
- 관계적 어려움: _____

9. 자해나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나요? 없다 () 있다 ()

- 시기: _____
- 방법: _____
- 얼마나(빈도): _____

10. 타인을 언어적 또는 신체적으로 공격한 경험이 있나요? 없다 () 있다()

- 언어적: _____
- 신체적: _____
- 얼마나(빈도): _____

11. 주로 혼자 지내는 것으로 인해 내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지요?

12. 주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나요?

13. 혼자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도움은 무엇인가요?

- 주변 사람의 어떤 도움: _____
- 필요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_____

14. 과거에 어떤 도움이 있었다면 혼자 지내는 것을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면담자의 Post Review>

1. 인상착의 - 첫인상

2. 위생상태

3. 면담태도

4.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문

5. 쉽게 대답한 질문

6. 은둔형 외톨이에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

7. 면담자의 전체적 느낌

■ 부록 2. 부모용 설문지

설문지(부모용)

안녕하세요? 귀한 시간을 내어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설문지는 선다형 질문지와 인터뷰 형식의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료는 익명으로 부호화 또는 전사되어 통계 처리됩니다. 옳고 그름의 정답이 없으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을 솔직하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본 설문지의 목적은 정책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이며 소요시간은 약 1시간입니다.

설문에 응하실 경우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이 설문은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히신 분에 한해 수행될 것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녹음에 대한 내용

- 1) 녹음 된 내용은 비밀보장원칙이 적용됩니다.
- 2) 녹음 파일은 안전하게 저장되며, 4개월 내에 폐기 됩니다.

*위의 설문 참여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며, 모든 사항에 동의합니다. □

2019. . . 서명 _____

*** 인적사항**

1. 자녀와의 관계: () 부 () 모

2. 생년월일 : _____년 _____ 월

3. 학력

() 초등학교 졸업 () 중학교 졸업 () 고등학교 졸업

() 대학교 졸업 () 대학원 이상 졸업

4. 결혼상태

() 결혼 및 동거 () 별거 () 이혼 () 사별 () 기타

5. 직업

() 회사원 () 공무원 () 자영업 () 전문직

() 판매 및 서비스 () 직업 없음 () 기타: _____

6. 가정의 경제 상황

() 상 () 중 () 하

7. 자녀 수 (총 _____명, _____남 _____여) 대상자녀 순위: _____째

8. 가족 사항:

	관계	연령	최종학력	직업	동거 여부	대상자녀와 친밀 정도					기타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가족 관계						()	()	()	()	()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	()	()	()	()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	()	()	()	()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	()	()	()	()	
					매우 멀다	멀다	보통	가깝다	매우 가깝다		
						()	()	()	()	()	

**I. 다음은 부모로서 대상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하신 내용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O표 해 주세요.**

“나는 자녀에게”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해 주었다.					
2. 자녀가 원하는 만큼 도와주었다.					
3. 자녀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도록 해 주었다.					
4. 자녀에게 쌀쌀하게 대한 편이었다.					
5. 자녀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했다.					
6. 자녀에게 다정다감했다.					
7. 자녀의 일은 자녀가 결정하도록 도와주었다.					
8. 자녀의 정신적 성장을 원하였다.					
9. 자녀가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간섭하려 했다.					
10. 자녀의 개인생활을 침범했다.					
11. 자녀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겼다.					
12. 자녀에게 자주 미소를 보여 주었다.					
13. 자녀를 어린애 취급했다.					
14. 자녀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15. 자녀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16. 자녀가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도록 했다.					
17. 자녀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 주었다.					
18. 자녀와 가끔 이야기 했다.					
19. 부모에게 의존심을 갖게 만들었다.					
20. 자녀가 제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느끼게 했다.					
21. 자녀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주었다.					
22. 자녀가 원하면 되도록 밖으로 나가게 해주었다.					
23. 자녀를 과잉보호 했다.					
24. 자녀를 칭찬해 주었다.					
25. 자녀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하였다.					

II. 다음은 생활 속에서 본인의 생각과 느낌을 묻는 질문들입니다.

편안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자녀가 고립생활을 시작한 시기와 지속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 고립생활을 시작한 계기와 지속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요한 순서대로 중복 체크 가능)
 - () 신체나 용모에 관련된 이유로
 - () 학업능력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 () 대인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어려워서
 - () 학교/사회생활이 부담스럽고 무가치하다고 느껴져서
 - () 친구들로부터 당하는 따돌림, 괴롭힘, 폭력이 싫어서
 - () 가정 문제로 인해 (부모의 이혼이나 불화, 질병 등)
 - () 원래 비사교적이고 내향적이어서
 - () 많은 사람과 접촉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 ()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3. 자녀는 어린 시절 어떤 아이였나요? 특별한 점은 없었나요?
4. 나는 자녀에게 어떤 부모였나요? 지금은 어떤지요?
5.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후회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6. 이 자녀로 인해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은 무엇인가요?
 - 신체적 어려움: _____
 - 정신적 어려움: _____
 - 경제적 어려움: _____
 - 관계적 어려움: _____
7. 자녀의 고립생활로 인해 가족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8. 자녀의 고립생활로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요?
9. 내가 보는 자녀의 미래는 어떠한가요? (긍정적 기대, 예상되는 어려움과 걱정 등)
10. 내 아이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떤 모습이길 원하나요?
11. 자녀를 포함한 청소년/청년들의 고립생활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2. 현재 자녀와 같은 고립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 주변사람들: _____
 - 정책 또는 프로그램: _____

<면담자의 Post Review>

1. 인상착의 - 첫인상

2. 위생상태

3. 면담태도

4. 접근하기 어려웠던 질문

5. 쉽게 대답한 질문

6. 은둔형 외톨이에게 정책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

7. 면담자의 전체적 느낌